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科學의 貧困 ―皆旣日蝕과 朝鮮―

一

今十九日 午後三時頃에 二分間의 皆旣日蝕이 잇다고하야 日本各地의 天文台、氣象台、大學天體物理硏究室等으로부터는 勿論이오 멀리 中國、英國、獨逸、米國等地로부터 數百의 學者들이 北海道 北海岸地方으로 雲集한다는 消息은 이미 世人이 周知하는 事實이다。學者들이 特別히 北海道 北海岸을 차자 가는것은 地中海나 西伯利亞地方보다 日蝕하기始作하는時間이 늣고 皆旣蝕의時間이 길며 物資運搬等交通도 便利한 때문이라 하거니와 過去 未開社會에서는 불길한 해를 잡아간다고 생각하든 一迷信的 現象을 硏究코저 莫大한 金錢과 時間과 勞力을 虛費하며 數百學者들이 寒風襲來하는 北海道僻地에 모혀드는 것은 一種 十字軍的 眞理에 對한情熱과 冒險心이 잇지안코는 될수업는 일이다。

二

今次의 皆旣日蝕에서 硏究의 對象이 되는것은 專門家가 아닌 吾人의 深索할바 못되나 이번 實驗으로써 어떠한 收穫이잇다하면 그것은 곳 一、二學者의 硏究心을 滿足식힐뿐아니라 全世界人類의 利益에 貢獻할바만흘것이다。過去의 日蝕觀測의 目的이 오즉 日蝕時間의 測定에 限定되어든것이 漸次 發達하야 太陽 그물건을 알기위한 그周圍의 反彩層、彩層、코로나의 撮影과및 太陽光線이 地球를 向해올때달(月)가튼 天體의 近邊을 지날때에는 電磁力에 依하야 光線이 屈折되는 所謂 아인슈타인効果의 的確與否를 實驗함에 잇다하게까지 되엿다 하거니와 이外에도 이日蝕現象으로 因한氣象의 低下에 伴하야 農作物에 어떤 影響을 이르키며 家畜其他 動物에어떤 心理的 變化를 生할지 이것들을 硏究한다하니 이것도 物理學、氣象學、地理學乃至 動植物學에까지 關係가잇다고 안흘수업다。따라서 吾人人類生活에 莫大한 影響을 줄것도 必然한 일이다。

三

日蝕觀測에 限치안코 무릇科學이 吾人 生活에 如何한 關係를 가젓는가 하는것은 吾人의 喋喋을 不要하나니 過去 潮水의 干滿이 宇宙의 造化로 알더것이 月의 引力에 依하야 生한다고 證明되엇이라든지 天圓地方이라하야 한번 가면 다시 못도라올 遼遠離의 길도 地球의 둥근것이 證明된以來 世界周廻의 길로 化하는것이라든지 모다 科學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냐。況 水陸 五萬里의 길을 航空機으로 三晝夜만에 飛翔하고 五萬里의 人과 電話로 對話를 하며 몃千里밧게의 人、物이 텔레비죤을 通하야 直接寫眞化할수잇는것을 생각한다면 科學文明의 發達에 驚異의 눈을 뜨지 안흘수업다。

四

그러나 이와가티 重要한 科學도 一旦朝鮮에 對하야 본다면 實로 暗黑의 世界에 不過하나 우리가 이 高度로 發達한 科學을 日常生活에 享有치못함은 勿論이어니와 이 科學의 研究를 一生의 事業으로 하야 世界的으로 貢獻한 사람조차도 거이 업다 할수잇스니 이번日蝕觀測에 우리朝鮮人學者가 一人도 參加치안햇다는것은 이 朝鮮의 科學의 貧困이 아니고 무엇이냐。經濟의 貧困이 科學의 貧困을 招致한도 理由 안되는것이 아니나 이곳에 全生命을 바치라는 篤學者가 잇다면 아무리 朝鮮인들 그리 冷淡할수는 업슬것이다。무엇보다도 體育界에 世界的 選手가 나매 社會的 同情이 沿然하듯이 科學에 世界的 學者가 나타나면 朝鮮社會도 그리 冷淡할것이 아닐것이다。

無條約狀態압두고 英米軍擴露骨化

英의 主力艦陣容强化計畫에 米도 均勢保持決意

(寫眞은 호어英海相(上)과 스완손米海相(下))

【華盛頓十七日發同盟】華府、倫敦兩條約期間滿了를 半歲後에압두고 英米兩國政府는 벌서부러 海軍擴張의 具體的計劃을 進行하고잇는데 뉴욕타임스의 倫敦特電에 依하면 英國政府는 滿了되는同時로 主力艦陣容의 强化를 決意하고 이미 老朽에達한 主力艦代換으로 新銳戰鬪艦 七隻을 建造하기로 決定하엿다고傳하다 以上의 報道에 對하야 米國政府當局은 異常한 關心을 表하고잇는데 유니버살通信社 華盛頓特電에 依하면 스완손海相代理는 米國도 同時에 主力艦七隻을建造하야 英國海軍과의間에 어데까지 均勢를 維持할 意向이다라고 말하엿다한다 그리고 스완손提督의 見解로 傳하는바는 左와如하다

英國政府가 傳하는바와 如히 三個年間에 主力艦七隻을 建造한다고 하면 米國政府도 亦是 對抗上 當然 主力艦 七隻의代艦建造에 着手치안호면안될것으로 議會에對하야 豫算案을 提出할것이다 但 日本政府가 進出치안는限 年限은 五個年이라도可하다고 思한다 何如든 뉴욕、텍사스兩主力艦의 代艦은 一九三七年 一月一日直後龍骨의 組立을 完成하게될것이다

英國空軍組織의 根本的改革斷行

空軍最高審議會決定

【倫敦十八日發同盟】英國政府는 陸海空三軍에 亘한軍備充實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는데 空軍의最高機關 空軍審議會는 今回英國國際情勢의 惡化에 鑑하야 本國空軍의 組織에 根本的改革을 加하야 戰時用兵作戰의 萬全을 期하기로되엿다 新機構에 잇서서는 從來의(英國本國防空司令部)와(沿岸防空司令部)는 解除하고 左의 空軍司令部가 設置될 豫定이다

一、爆擊戰鬪空軍司令部
二、沿岸防空司令部
三、空軍練習司令部

新機構에 依하야 英國空軍은 平時戰時를 不問하고 三司令部는 戰時、平時를 不問하고 新空軍의 意思를 決定할것이다

飯米不足地方에 政府米大量賣却

【東京電話同盟】十八日 農相官邸에서 열린 地方長官會議에서 農相은 政府所有米의 隨時賣却에關하야

政府는 從來 그所有米의 整理賣換을 行함에 當하야 可及的 凶作地에 隨時賣却해왓는데 今年度는 그米穀事情에鑑하야 今後 賣却數量額도 相當額에 達할 豫想이다 따라서 이賣却의監督을 嚴重히하야 轉賣其他 不正處分을 行하지안토록 配慮해주기바란다

고 이것의 嚴重한 監督에 關하야 地方長官의 注意를 促하엿다 最近의 米價高 在米不足問題에 關하야 政府가 如何히 苦慮하고잇는지推察되며 今後政府의 米穀政策이 如何할지를暗示한것으로 注目할만하다 卽今後 米價高 在米不足 地方의 飯米不足問題에 對하야 政府米의大量賣却에 依한米價調節이나 隨時賣却에依한 飯米緩和策에依하야 解決하는外에 方途가 업다 政府米의 大量賣却을 斷行한다면 現在 六百萬石을 缺한政府米中에서 百萬石二百萬石이란大量을 急速히 賣却하면 假令今年에 再次凶作의 不幸에 遭遇할과如한 境遇에 政府米에 依한米價의 需給調節力을 顯著히 喪失하게될것이므로 따라서 政府로서는 적어도 今年度米穀生産額의 豫測이 서지안흐면 그賣却額을 決定할수업는 實情에잇다 따라서 當先 飯米問題解決에 關해서는 飯米不足地方에 對한 賣却은 過般의 議會를 通過한 米穀統制改正法의 主旨에 基하야 相當한 廣範圍에 亘하야 大量賣却을 行하려고 決意한것으로 그結果로 前述한바와 가튼 注意를 地方官에 對하야 喚한것이라고 보고잇다

政府米買受申込 六十萬石突破 飯米不足으로殺到

【東京電話同盟】十七日의 政府米買受申込은 飯米不足때문에 續續、全國的으로 殺到하야 八年産米 一二、九七〇・八石、九年産米 一四四・〇石 計 一三、一一四・八石인데 昨年 十一月一日以降累計는 六十一萬二千餘石이되여 六十萬石을 突破하엿다。

七月中旬頃 戒嚴令解除

【東京電話同盟】二、二六事件突發에依하야 그翌二十七日부터 東京市區域에 戒嚴令一部가 適用된그後 三月二十日 六月一日同十五日의 三回에亘하야 適用範圍가 漸次 緩和되여 現在에는 二、二六事件에 關한 言論 論議의 集會가 禁止되여 잇슬뿐 이오 屋外集會 開催는 自由로 되엿다 그리고 東京治安이 現狀대로 推移되면 新事態가 發生되지안는限 七月十日前後에는 完全히 戒嚴令撤廢를 보게될것으로 豫想된다 現在戒嚴令의一部가 아직適用되는所以는 不祥事件에 關한 善後處置를 遺憾업시하고 今後如斯한 事件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려는데 잇는데 現在狀態로는 如斯한事態는 發生될수업스므로 그期限이 短縮되게 되엿다

『마르세이유』에 流血劇

『모로코』、『알사스』에도 飛火

佛國各地에依然罷業續出

【巴里十七日發同盟】佛國의 罷業은 마르세이유地方에 波及하야 미유르즈地方 鑛山罷業에뒤이어 十七日 멧스市에도 罷業이 勃發하야 보르도 마르세이유等 大都市도 同樣의 罷業을 보게되엿다

【마르세이유十七日發同盟】마르세이유의 罷業은 十七日에 暴動化하야 마친내 流血의慘劇을 演出하게 되엿다 十七日 午後 罷業勞働者約五百은 市中데모를 敢行中 約三千의 愛國右翼團體와 衝突되여 相互 나이프를휘두르며 亂鬪를 演出하야 數名의 重輕傷者를 내엿다 移動警官隊가 出動하야 鎭撫에 當한 結果 秩序는 곳 維持되엿스나 市民은 極度의 不安에 싸혀잇다

【알제十七日發同盟】佛國本國의 罷業은 十七日 마친내 바다를 건너서 모로코 알제리아佛領阿弗利加에 飛火하엿다 罷業者는主로 農園勞働者에게 煽動을 바든것이라고 한다 移動警察隊가出動하야 多數의 捕縛者를내엿다 알제市百貨店은 店舖를閉鎖하고 休業中이나 이쪽은罷業의要求를容認하고 解決될可能性이잇다 그러나 罷業은 金屬鑛業 石油從業員에 波及하야 形勢重大化하야 推移는憂慮되고잇다

【미유르즈佛蘭西十七日發同盟】佛國大罷業은 各地가모다 解決을짓게되엿스나 十七日午後에 이르러 알사스州에 依然 飛火하야 미유르즈포탄슨鑛山及 도마니에地方鑛山等의 勞働者約五千이罷業을 開始하엿다 그結果鑛山關係以外의 勞働者五千과 아울러 同地方의 參加者는 約一萬에達하엿다

白耳義罷業도 全國的으로擴大

【부랏셀十七日發同盟】炭坑罷業에서 發端된 부랏셀罷業은 十八日마침내 全國에 波及하게되엿다 特히 리에쥬及 부랏셀이가장 激烈을 極하야 靑年勞働者及 勞働組合員은 各派로나누어 先頭에 赤色大旗를揭하고各鑛罷業을斷行하라고 絶叫하면서市中의示威行進을 決行하엿다 안베르스、강兩港은 比較的 平靜을保持하고잇스나 船舶은 모도 出帆不能에陷하여잇다

힌무러親衛隊長을 警察總司令에任命

【伯林十七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國內警察網의 綜合統一을期하고 十七日 親衛隊힌무라ー氏를 全國警察總司令에 任命하엿다 總司令은 內務省에 屬하는 全國普通警察特別警察、秘密警察을 統轄하는 地位에잇서서 나치스黨 諸政策의 監視에 關한 親衛隊의 任務와아울러 힌무라總司令은 全國의 警察權을 確保하게되엿다同時에 히틀러總統은 달쳬偵警司令을 後任副司令에 任命하엿다

須磨總領事歸任

【南京十八日發同盟】須磨南京總領事는 十八日午前七時 南京에 歸任하엿다 十時에 雨宮陸軍中原海軍 兩武官과 會見하고 中央의 對中方針을 說明하고 今後의 具體的方針에 關하야 協議하엿다 다시 十九日에는 外交部長張群氏 實業部長吳鼎昌氏 鐵道部長 張公權氏等 國府首腦部를 歷訪하고 有田外相이 授한 新訓令에 基하야 外交折衝을 開始할터인데 川越新大使의 着任을 압둔 基礎工作이라고注目되고잇다

獨伊兩國의接近이 英의制裁抛棄理由

歐洲再混亂을憂慮코

【倫敦十七日發同盟】英國政府는 總選擧結果에基하야 從來의 聯盟政策을 抛棄하고 對伊制裁案을 解除하야 伊太利政府의 實力行動을 默認하기로 決定하엿다 右決定의背後에는 獨逸 伊太利兩國의接近을 中心으로 複雜多岐한 國際事情이 伏在하여 잇다고解釋된다 卽英國의 覺書가 獨逸政府에 通達되以來 이미一個月半 히틀러總統은 無氣味한 沈默을직히면서 一切回答치 안흘뿐더러 羅馬駐箚大使핫셀博士를 通하야暗暗히 무솔리니首相과折衝을 進行하고잇는 一方 着着國權回復의 國策을 進行하는同時에 베르사이유條約의 第百五十五條廢棄 此를 北海要衝헤리고라이드等에 새로 要塞를 構築하엿다고까지 傳하야 異常히 險惡한 國際情勢下에 잇서 더욱 制裁考慮를 繼續할境遇에는 全歐洲는 서로對立하야 再武裝陣營의分裂必至를 豫想케함으로 英國政府는 强力的外交政策을放棄하고 外交政策의 急轉回를斷行하야 制裁抛棄와 同時에 聯盟改組提唱을 決意하게되엿다한다 그豹變의理由로 左와如한것이 列擧된다

一、獨逸政府가 全然軍備를 充實히하야 歐洲政局에 多大한 壓力을 加하면서 英國의 覺書에對하야는 容易하게回答치안코 無氣味한 沈默을직히고잇다

一、히틀러總統과 무솔리니首相과 協議를 進行하고잇는데 結局 獨逸政府가 墺太利獨立을 保證하는代身 체코슬로바키아에 對하여는 自由行動을 留保하자는 諒解가 兩巨頭間에 成立될空氣가 漸次 濃厚하게 되엿다

一、獨伊다음에 墺太利、和蘭、波蘭、獨逸等中 東歐新블럭이 마친내 成立되여 歐洲가 大陸的集團으로 分裂될 憂慮가 잇는것 (寫眞은 이든外相)

米補助艦建造案 今議會通過至難

【華盛頓十七日發同盟】米國海軍省은 今後十個年間에 炭水補給艦、給與艦等 艦隊補助艦船五十四隻을 建造할計劃案을 樹立하야先般 下院에 提案하야 同案은이미 下院海軍委員會를 通過하엿스나 下院本會議에 上程되지안헛고 上院海軍委員會도 七月七日休會하게 됨으로 今議會通過는 絶望視되고잇다 그러나 海相代理스탄듸提督은끄까지 同案의 實現을 要望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英國의 炭水補給艦과 給與艦에 流用할수잇는 商船은 米國보다 훨신 優勢하다 他方 日本快速貨物船은十八노트의 速力을 가진데 對하야 米國의 炭水補給艦은 겨우 十二노트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此等列强과 억개를겨누기爲해서는 每年十二隻 乃至 二十隻의 建造를 行하는것이 急務이다

駐日伊大使 有田外相訪問

【東京電話同盟】駐日伊太利大使 아우릿치氏는 十八日午前十一時 外務省에 有田外相을 訪問하고 여러가지 懇談을 하엿는데 에디오피아駐箚代理公使로 派遣된 田使介氏의 에디오피아入國問題로잔느條約改正問題에 關하야 協議 한模樣이다

中央、廣東은安協 廣西는依然不屈

湖南戰雲俄然濃厚

【南京十八日發同盟】中央西南의 政治折衝은 아직 充分한成果를 보지못하고 不安氣分이 再次濃厚하게되엿는데 十七日 廣東側은 陳濟棠氏로부터 南北의 團結을 主張하는意味의電報를 王寵惠氏에게 보내고 南京滯在中인 孫家哲 馮銳氏等은 連日 蔣介石 王寵惠 孫科 孔祥熙氏等首腦部와會見하고 廣東의 情勢를 報告하는同時에 和平折衝에 奔走하고잇다 廣西側은 依然强硬態度를 取하야 夏威部隊는 十六十七兩日에亘하야 再次北進을開始하고 一部는 이미 郴陽으로부터 三十五中里를隔한地點에 到着하엿고 後續部隊는 繼續前進中이라하야 一時前進을停止하엿다 中央軍도 再次 南下를 開始하야 十六日來陽의 南板橋一帶에 一部는 郴陽에進出하엿다고 傳하는바 湖南의 戰雲은 갑작이 急迫되여 樂觀을不許하는 形勢를 呈하게되엿다

人事・集會

▲鄭錫裕氏(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新任人事次來社
▲李啓復氏(慶尙北道産業課長)同上
▲李龍載氏 十七日竹添町三丁目五〇番地自宅에서 [illegible]
▲金士永氏(侍天敎大道師)十八日午前五時四十八分京城府堅志町八〇番地에서別世

夕刊後市況 十八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二九〇 (不變)
鐘新 一五八三〇 (不變)
日産 七一二〇 (不變)
東新 一三三八〇 (不變)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六六三〇〇 先限 六九三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 先限 五六七〇

對濠擁護法發動 法制局審議遲延

【東京電話同盟】濠洲政府의 日本貿易壓迫의 不法態度에 對한 報復手段으로서의 通商擁護法發動은 十九日의 定例閣議에 附議하야 勅令으로 公布할터이던바 右擁護法發動에 伴하는輸入許可制實施의 商工省令에 關한 法制局의 審議가 늣저서 아마 二十三日의 閣議에 附議하기로 延期 될것으로 보힌다 그러나 法制局의 審議가 意外로 빠르게되면 回章閣議로 正式附議할 수도 잇슬모양이다

陳濟棠氏新要求 四個條를國府에提出

【上海十八日發同盟】陳濟棠氏는 西南政務、西南執行兩委員會의決議에 基하야 揭德昭氏를 代表로 十七日 南京政府에 左의四個條의 新要求를 提出케하엿다

一、對日外交의 淨化와 抗日工作의 準備
二、湖南省內의 中央軍撤退
三、訓政自治의 延長과 國民大會召集期日의 延長
四、兩廣에 對한 中央側의 補助金增額

日本移民의 集團生活制限코 白人移民과差別

十二歲以下兒童은부라질語로敎育

부라질新移民法內容

【東京電話同盟】부라질大統領은 去五月의 議會開會式의 敎書에서 新移民法案提出을 言明하고 日本人移民에 制限을 加할것을 言明하얏스므로 이推移에 對하야 日本政府는 重大關心을 示하고잇섯는데 十八日 澤田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議會에서 審議될 新移民法案의 內容은 嚴秘에 附하고잇스나 大要 如左한것으로 日本移民은 前回의 入國制限에 繼續하야 다시 今回의 法案으로 徹底的制限을 바들것이 明白하게되엿스므로 澤田大使는 現地에서 善後工作을 開始하기로되엿다

一、日本人移民을 白人移民과 差別的으로 取扱함
一、十二歲以下의 日本人移民의 子弟는 반듯이 부라질語에依하야 敎育을 바들 必要가잇슴
一、日本人移民의 集團生活을制限하기 爲하야 부라질農民을 이에 配置한다고 그래도 不足한 地方에서는 葡萄牙移民으로서 雜居케함

普通文官講義

速成科で 八月の普文 突破せよ

朝鮮總督府에서는每年八月文官普通試驗을施行하는데其때마다本會로부터全合格者의過半數가會員會友合格者입니다朝鮮普文의合格者에限하야速成科生의比較的만흔것은愉快한現狀입니다大槪는一月로부터五月頃까지入會하야講義錄全部를一時에모아서急速히準備하야꼭八月에應試하는法으로其中에合格即時로總督府라던가道廳、郡廳等에奉職하야一年內로入會・合格・就職의三段跳는大飛躍으로成功하는사람도만습니다 따라오시라!!

試驗合格就職實例

試驗合格者는、누구든지日鮮滿各官公署에奉職하고잇는바、다음에最近朝鮮에서의就職實例를들면
●李存雄君(全北扶安郡廳)●李東鉦(朝鮮總督府農林局)●金永夏君(江原道廳學務課)●李在律君(咸南端川郡廳)●趙泰鎬君(忠北槐山郡廳)●黃海坤君(江原道廳地方課)●金海坤君(咸北城津郡廳)●金英煥君(總督府裁判所書記를拜命코、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에)●宋道永君(慶南陜川郡廳)金河鏞君(咸北慶興郡廳)

百廿頁冊子進呈

●葉書에朝鮮日報名記入、住所氏名記、申込次第、獨學成功實例滿載한冊子、無代進呈。

東京市澁谷區 明治神宮表參道
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
振替東京 二三四五六番

二大講義錄
오시라이殿堂으로

成功者만키로日本第一인育英殿堂

現代書道講座

毛筆書道와펜字와便紙併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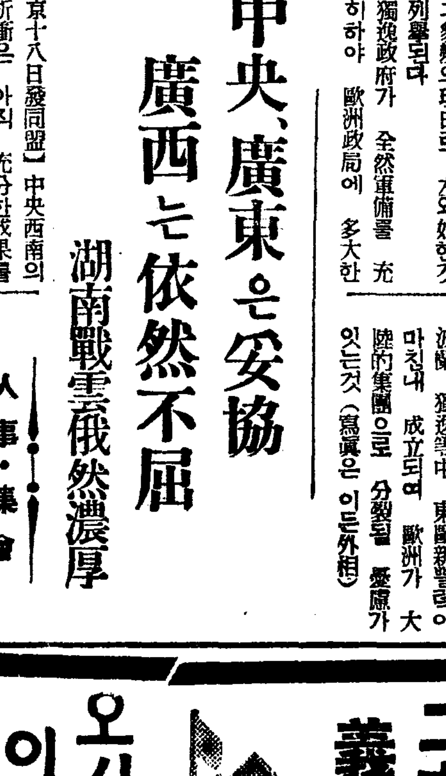
受驗에도、就職에도、社交에도、緣談에도、能筆者는百퍼센트의得이다。通信敎育界의王者인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는、現代書道講習會를復興식혀書道의重鎭、精銳、權威者를總動員하야從來에보지못하든가장理想的인「書道講習錄」을編纂刊行하엿다。「毛筆」과「펜字」와「便紙」의各抄를併講、美麗한各課의書體와、懇切明快한講義와를併하야六個月全八卷、興味津津한中에、어느덧아지못하는사이에、누구든지能手되는巧妙한案出로되야잇다

講師는、吉田苞竹、高塚竹堂、雲松本芳翠、松井如流、山下雲谷、佐藤南石、山野紅蘭、田邊古村諸先生입니다

●葉書에『朝鮮日報』名記入『書道見本』를正文次第

各手本付 見本進星

東京市澁谷區穩田一ノ四
現代書道講習會
振替東京八八八八八番



一軌道車衝突一 (上)은 貨物車와 軌道車의 正面衝突한現場 檢査光景 (下)는 負傷者를 入院식힌 府民病院

單線에 信號도 업시 無軌道的으로 運轉
昨日軌道車事故發生의重大한原因
幹部는 辭職으로 謝過?

경성궤도회사에서 긔동차로경성사범학교생도 일백칠십륙명을 뚝섬으로 태워가지고 가다가룡두역(龍頭驛)부근 다리건너에서 뚝섬방면으로부터 동대문쪽으로 향해오든 화물차와 정면충돌이 되여서 오십여명의 중경상자를 낸사건은 서울에서 근래에보기 드문 교통사고로 일반에게 만흔충동을 이르키고잇다 사고를 낸 직접원인은 긔동차의 『브렉기』(制動機)가 탈이나서 정거를 할려하여도 정거가 되지안흔데에 잇다하나 그보다도 놀래지 안흘수업는 중대원인은 궤도가 단선(單線)임에도 가리지안코 이편에서나 저서편에서 차가 서로 마조바라보면서 운전하여 가고 오기때문이다。

대절차(貸切車)는 필요업는 정거장에는 정거를 하지안키로 되엇다하지마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를 피해야만 아프로 진행할수 잇는것임에도 돌보지안코 그야말로 그냥 무궤도식(無軌道式)으로 아모 서로 련락도 업시 제각금 가고십흔대로 차를 운전해가다가 마츰내 필연적으로 그 중대한 사고를 내고 마것이다 경성궤도회사의이와가튼위험하기 짝이업는 운전방식에 대하야 일반사회에서는 그 몰상식한 처사를 자못비난하지 안흘수업는 형편이라한다

전도유망한 만흔소년학도들을 병신을 맨드러노흔데 대하야경성궤도회사에서는 당연히 충분한위자(慰藉)방법을 강구하여야 될것은 물론이며 회사의 중요책임자인 사장과 동대문영업장과 동대문영업소 주임들은 자긔들의책임을 느끼고 사직하고 부상자들에게 대하야 사죄하게될것으로 관측된다

連絡도 업는 運轉은 會社側의 不注意
將來를爲하야徹底히警告
◇…京畿道趙保安課長 談

경성궤도회사에서 이르킨 불상사에 대하야 경기도 조(趙)보안과장은 다음과 가티 말하다 이편에서 가는 차와 저편에서 오는 차가 서로 피할방법도 생각치안코 단선 궤도에 그냥 제대로 운전해 가고 온것은 회사측의 부주의한 탓이라하지 안흘수 업다 그부주의로 말미암아 만흔 승객에게 희생자를 낸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다 장래를 위하야 단단히 경고를 할터이다

誠意꼇慰藉
軌道會社責任者 談

경성궤도회사장 암기신웅(岩崎信雄)씨대리로 동대문영업소 주임 소림죽차랑(小林竹次郞)씨는다음과가티 이야기한다 뚝하게 사고를내여서 만흔 부상자를 낸것은 미안하기짝이엇슴니다 부상자의 치료에 대하여서는 경성것 해드릴작정이올시다 그밖게 위자방법(慰藉方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엿슴니다 생각한바 보다는 비교적 상처를 낸사람이 적어서 불행중다행으로 생각합니다

四處의病院에 十四名入院
廿一名은通院키로

부상한 경성사범학교생도는 곳부민병원 대화병원 리동병원 식촌병원에 각기입원 혹은통원하기로햇는데 그중에 중원자랑은 생명이 위독하다하며 부상자의 총수는 삼십오명이다

○府民病院
▲宮原俊郞 生命危篤▲木村莊七週間▲有定稔雄八週間▲高木濂郞三週間▲林春瑢三週間▲安見和彦三週間 以上入院
▲松林勉(七)六週間 伊勢田邦男(七) 六週間▲吉田晨(七)六週間▲澤貫一(七)二十日間▲吉田博道(七)八週間 ▲木村敏雄(七)二週間 以上通院者

○大學病院
▲大島貞久(七)五週間▲內海勇藏(七)五週間▲以上入院 ▲佐竹直美(七)四週間▲金承義(七)右肋骨骨折三週間 ▲野澤恒雄(七)二三週間 ▲高光林(七)二週間 ▲藤岡博夫(七) 一週間▲中山定輝(七) 四、五週間▲石村和元(七) 三週間▲杉山俊英(七)四、五週間▲南宮圭二(七)左胸部打撲 二週間▲申明浚(一七) 前額部裂傷 二週間 以上通院

○[illegible]病院
▲內大里一夫(七)二個月▲[illegible](七) 二週間▲[illegible](七) 左[illegible]左下[illegible]骨折 二個月 以上入院.▲佐[illegible](七) 一週間▲五十嵐[illegible](七) 一週間▲辛圭[illegible](七)左大[illegible] 二週間▲古川[illegible]三(七) 一週間▲辛[illegible](七) 一週間 以上通院

○[illegible]村病院
[illegible](七) 右側[illegible]及其他[illegible]折 入週間▲辛明根(七)左側大腿[illegible]部打撲入週間▲北村潤葉(七)十週間 以上入院

以上入院患者 一四名
通院患者 二一名
計 三五名

檢事와關係警官等 現場에出張檢査
長時間동안對策協議

경성궤도회사의 사고닌 현장에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서는 주견(酒見)검사 경긔도형사과에서는 야촌(野村)형사과장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이등(伊藤)사법계주임이 각기 출장하야 장시간동안 엄밀한 조사와 검증(檢證)을 하엿다

引率者업슴은 學校側의過失
京師當局者의談

인솔하는 선생도업시 일백칠십여명학생을 승차케하야 만흔부상자를내인 경성사범학교당국자는말하기를

『교장이 지금함북지방에 출장중으로 부재인때에 이와가튼 불상사를 낸것은 참으로 미안한바올시다 선생이 인솔하지안흔것은 일조이조에 각각 조장(組長)이잇서 선생대신에 인솔하게 되여잇기때문이올시다마는 이런불상사를 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엿슴니다 좌우간 빈사의 중상자까지 당한생도가 잇는이상 적극적으로 그구원에 노력할뿐입니다』 운운

突然運轉中止 郊外住民不平

사고를 이르킨뒤로부터는 이날 종일토록 동대문 왕십리(往十里)사이는 운전을 끄첫스므로 그선로로 래왕하든 교외주민들은 별안간에 만흔 불편을 늣겻다 이런사고가생긴출도 모르고 동대문역까지 나왓다가 별안간에 랑패를 본 손님도 수백명이엿다한다

蒼穹의異變 黑衣의太陽

대우주(宇宙)신비의 일단인 개기식(皆旣食)의 흑태양(黑太陽)을 해부하려는 대망의 십구일은 마침내왓다 십구일아침 이태리의남방 지중해(地中海)의일점에 떠려진 달(月)의 검은그림자(黑影)가 일초(秒)일천미돌의 속력으로『그리샤』남방에 상륙하야 서백리아로 일본은 북해도(北海道)를 거처서 태평양해중에서 그자최를 감추는 지표(地表)의 흑선(黑線)에 모이는 세계 천문학계의 시선은 현대 과학의 최고능력을 총동원케 되는중 그중에서 영국, 미국, 중국, 인도, 호주, 첵코, 파란, 일본등의각국의학자 일백오십여명이 모히어 삼십여개소의 관측진을치고 수백만원경비를다하여 단일분오십사초(一分五四秒)의 흑태양의세계를 해부하려는북해도야말로 세계학계의초점이되여잇는데 이날 태양의절반남어(六分六厘)를 [보]는 인천(仁川)관측소는 어떠관측을 하게될것인가

○……○

인천관측소는 조선의 중앙긔상대와가튼존재이니 원체 긔상관측이 주목적으로되여잇서서 개긔식을해부하는 천문학(天文學) 물리학(物理學)관게와는 방면이 또다른관게로직접전문적권위잇는 관측을하기에는 설비기타에 큰 부족이잇서서 크게 긔대할바는 아니라하나 천지의 중대한이변을당하야 긔상에밋는 변화는 어떠하는점이 또중요한 문제이어서 인천관측소의 관측이 단독적해답을 엇지는 못한다해도 전일본측후소관측의 종합적보고에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되여 이날 오후한시오십칠분 초휴(初虧)시각부터 복원(復圓)되는 네시이십오분휴초까지 두시간동안 국부(國富)소장이하 전소원이동원하야 네반에 논아서 관측을개시한다

○——○

其一 일식이 직접적관측으로 재일중요한것이 되여잇는 태양면관측 촬영이다 인천 관측소에는 적인지(吋)의 적은 적도의(赤道儀) 한개가 잇는데 이것을 가지고 처음 달(月)이 태양면을 가리우기시작하는 순간부터 일식이 꿋나기까지, 약 오분간겨을 두고, 정확한시각에 [illegible]이 목적인데 태양표(太陽表)와 태음표(太陰表)에 의하야 일식의 시간을 수백년의것이라도 계산은 할수잇스나 신비로운 천테의일이라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잇는것인가 하야 달의궤도(軌道)와 지구(地球)의궤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역활을하는것이다

○……○

其二 다음은 지자긔변화(地磁氣變化)의관측이다 태양에 혹점(黑點)하나만 더생기어도 지자긔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임으로 태양면의 절반남아나 가리워지는날에 그변화가 또심하리라는것이다 이것을 밝히는것도 역시 지상의 천후변화관계를가진다는것이다

○……○

其三 일사량(日射量)의 관측 태양면이 가리워지면 지구상에 빗최이는 광선이 삭어지고 따라서 태양열의공급이 적어질것이니 그러면 태양면이 가리워지는 면적에비하야 일사량과태양열의 공급량의 변화는 어떠케되는가 이역 긔상학상중요문제이다 이것도 오분간의간격을두고 정확한 관측을 하게된다

○……○

其四 태양면 절반이나 가리워지면 일사량과 태양열의 공급의 변화에따라 상층긔류(上層氣流)에도 당연히 변화가 잇슬것이니 어떤변화가생길것이냐 이날수백개 고무풍선을 만들어 하늘에날리어 바람가는대로하늘에올라가는것을 망원경으로보아서 그거리와방향과 이동의 속도를측정하려는것이다

○……○

이가튼 여러가지의 관측을위하야 관측소원들은 얼마전부터 준비를하고 또일변에는 이날의 관측을위하야 예비관측을하여왓는데 긔자가 방문한십팔일에도 『지자긔』관측담임자는 일측부터지하층의 『마그네』실에들어가좀처럼 나올줄을모르고 일사량관측반의 두명은 확대경을가지고 한난계가튼 초자관에 나타나는 『메다』를 정신업시 보고잇섯다

○……○

그러나 이와가튼 일각천금의 이시각도 비오기와 날이 흐리면 극소부분의 작업이외는 모다 헛수고가 되는것이다 그일부라는것은 『지자긔』의변화관측뿐, 그런데 인천관측소는 긔상관측이 본래의 사명이라『……글세요……래일은 정녕 날이 흐릴모양가튼데……인천가트면 북해도의관측은 거이 절망일걸요……』하며 식심(蝕甚)의세시십오분경은 볏이적어질터임으로 당연히 명암(明暗)의차는잇슬것이라는데 그정도는 말키어렵다고 한다 또오분안으로 일식을보는방법은 유리에먹을 발으고보면잘볼수잇다 (끗)

(커트는 경성지방일식 식심=蝕甚=부분)

今日午後 1時57分 京城地方에서 初虧
初虧부터 復圓까지二時間의長時間
仁川觀測所日食觀測陣

仁川觀測所日射量豫備觀測光景

北靑農組幹部 李丑岩公判回附

【咸興】 북청농조(北靑農組)의덕성지부(德城支部)의 간부격으로 활동하다가 재작년 총검거당시 고묘히 피신하여 다니다가 지난삼월중에 피검되리축암(李丑岩)(二七)은 지난후일에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엿든바 심혹일 취조가 끗나고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공판에 회부되엿다

八十餘名農民이 水組에大擧陳情
咸興水組蒙利區域十六個洞民
咸南地方旱騷波紋

【咸興支局電話】 함흥수리조합몽리구역인 함주군 련포면(咸州連浦面)에잇는 열여섯동내 주민들은 요지음 감음때문에 팔백삼십정보나 되는논이말라서 겨우그반분은 모를 심엇스나나머지는 모를옴길수도업고 심은모도말르게되여 십칠일오전아홉시경에 면사무소에서 동민대회를 연결과 한동가에서 한사람식대표자를 내여 함흥수리조합(咸興水利組合)에 물을대여달라는진정을하기로 결의하여 십팔일오전열시경에 선발대(先發隊)팔십명이 함흥시내에 잇는 함흥수리조합으로 몰려와서 물을대여달라고 진정을하엿다 나머지삼백여명 주민도 진정차로 속속 부내로들어오는중인데 당국에서는 사태를중대시하고 함주군수와 수리조합고교(高橋)리사와도농무과(農務課)소도(小島)기사가 현장에 출동하면서 위선 도중에서 맛난주민일백오십명을겨우돌려보내엇다 조합에서는 넓은면적에 이미물을대여버려서 이이상터대일물이업다고 하는데 농민들의 공기가 험악하여서 그귀추가자못우려된다

十餘名死傷慘變
"까솔린"車正面衝突
十七日惠山營林署管內에서

【咸興支局電話】 작십칠일오전여 함경남도경찰부에 들어온보고에의하면 작십칠일 오후여덟시경에관내갑산군운흥면생장리(甲山郡雲興面生長里)와 동면룡암리(龍岩里)사이에잇는 혜산영림서경영(惠山營林署經營) 목재운반(木材運搬)궤동차선로에서 목재를운반하고잇든 "까소링"차 두대가 정면으로 충돌하야 탓든인부중 세명은즉사하고 십여명은 중경상을당하얏다는데 이급보를 접하고방금 혜산경찰서에서는 사법주임이하 계원다수, 혜산영림서에서는 서장이하가 출동하야 사상자를 응급처치하는 동시에 사건을 조사하는중이라한다

就職못하는것을 悲觀코投身

십칠일 오후여섯시반쯤되여 한강신사압헤서 어떤소년이 강으로 몸을날리여 뛰어드러가는것을 때마침 순찰하고잇든 룡산서원이보고 빨리 건저내엿기때문에 요행 생명은건젓는데 이소년은 전라북도 순창군순창면순화리(淳昌郡淳昌面淳化里)김순고(金淳基)의 둘째아들 석진(錫珍)(一七)으로 가정불화와 취직못되는것을 비관한끄테 염세자살을하려는것으로 판명되엿다

寺洞도結局倂合
大平壤實現되면
秋乙美面만他面에新附

【平壤】 린접지 대동강면(大同江面) 림원면(林原面) 룡산면(龍山面) 서천면(西川面) 률리면(栗里面)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평양건설을 목표로 하는 평양부의 도시계획과 부행정구역확장에 대해서는 총독부와 평양부에서 립안하여 설계를 진행중이어서 재등(齋藤) 부내무게장은 선진도시 경성의 실지연구와 총독부와 타합을 겸하여 상경중이므로 그 귀임을 기대려 대평양건설계획의 전모가 판명될것으로 추측된다。

도시계획과 행정구역확장에 대하여 사동(寺洞)이 문제중에잇섯고 총독부측의향도 사동은 해군광업부가잇서서 시설도 완전하므로 특수사정이 업는한 평양부내에 편입할 필요를 인증하지안는다는 주창이어섯스나 린접지역중에서 가장집단지인 사동이 편입되지안는것은 무의미한것일뿐 아니라 광업부측에서도 부에편입을 희망하고잇는터이다

이때문에 부로서는 총독부당국에·향하여 사동을 편입할것을 강조하게되여 사동편입문제는 급속도적으로 실현이 될모양이다

다못 사동의 편입으로 추을미면(秋乙美面)의 존폐가 말성이나 사동리는 평양부 사동리가될때에는 추을미면은 다른면에 병합해 버리고 말터이라한다

올림픽籠球의밤
"興味津津한餘興"
今夜鍾路靑年會舘

世界舞臺에 登場하는 初代의 籠球代表 李性求, 廉殷鉉, 張利鎭三選手를 마저 잇는 籠球界에서는 이들의 壯途를 祝福하는 意味에서 靑友籠球俱樂部와 延專籠球部의 共同發起로 今十九日 午後八時부터 鍾路靑年會運動室에서 "올림픽籠球의밤"을開催하기로되엿다 이날밤의順序는 올림픽出場 三選手와 靑友팀(金振秀、李惠溥、孫祿俊三君)과 一團과 延專現役과의 對戰을 비롯하야 OB對延專卒業班의 게임이 잇슬터이며 興味津津한 餘興도 잇슬터이라는 바 이들三選手를 激勵하며 聲援하는 在京스포-츠팬들의 參觀을 바라다고한다 當夜의 觀覽料는 白券 下層三十錢, 靑券 上層二十錢이라하며 收入金은 三選手의 遠征費로 援助할터이라한다

女子籠球
女高、進明各勝

日本籠球協會 朝鮮支部主催의全朝鮮女子選手權大會 中央豫選리-그戰第一日은 十八日午後四時三十七分부터 貞洞町 第一高女『코-트』에서 淑明女高 同德女高 京城女高 京城女師 龍谷高女 第一高女 第二高女等의 八個校가 參加한가운데 열리엇바 날龍谷이 第二高女를 進明이同德을 京城女高가 京城女師를各各勝捷하엿다

龍谷12(8…4 / 4…2)6二女

【第一次戰】 龍谷高女對第二高女戰은 同午後四時三十七分부터 鷲尾、大草兩氏審判아래 開始되바 結局 十二對六으로 龍谷高女快勝하엿다

進明22(18…4 / 4…3)7同德

【第二次戰】 進明女高對 同德女高戰은 同午後五時三十四分부터 林東洙 大草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二十二對七로 進明女高快勝하엿다

【進明】 F{高鍾順 柳海順 金李貞} C{尹丙姬} G{孫福貴 禹鍾玉}
【同德】 F{尹姬根 李完順 金貞順} C{李경心} G{李德敏 徐貴烽}
0 FT 1
11 FG 3

女高19(10…9 / 10…5)15女師

【第三次戰】 京城女高對京城女師戰은 同午後六時 三十二分부터 鷲尾、鞠衙兩氏審判아래 開戰한바 結局 十九對十五로 京城女高快勝하엿다

【女高】 F{淑子 李容淑 金淑} C{寬信 金淳 盧智} G{金福善 劉玉環}
【女師】 F{熙愛 李英貞 張貞} C{女寬 金翠 金錦} G{熙淑吉 月淑 柳李朴 山貞 西}
5 FT 3
5 FG 8

中等校卓球大會

全朝鮮學生卓球聯盟主催의 第一回全朝鮮中等校卓球大會는 六月廿一日 午前九時부터 城大醫學部卓球場에서『트나멘트』式團體戰을 行할터이라한다

明大15A 京城9

東京六大學리-그의覇者 明治大學對全京城(殖銀)野球戰은 十八日 午後五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柳(球審)、白石、平井、中村(壘)三氏審判下에 京城先攻으로 開始한바 이날 觀衆은 無慮萬餘名에 達하는 初記錄的盛況을 이루엇는데 結局 十五A對九로 明大軍連勝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京城	0	0	0	0	0	0	2	6	1	9
明大	2	0	9	0	4	0	0	0	A	15A

◇投捕…(京城)李榮敏 德島…小笠原 (明大)淸水 田所…櫻井
◇本壘打…北澤、尾茂田(明大) 保田(殖銀)

今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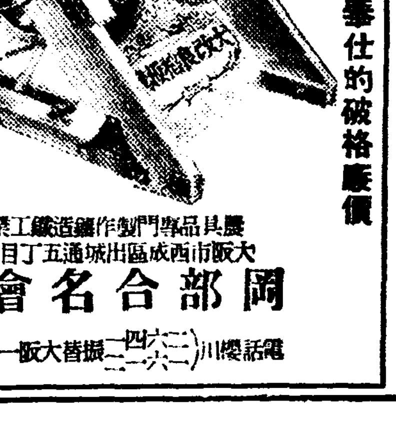
◇籠球=第六回全朝鮮中等校籠球大會第一日 午後四時 延禧町延專コート
◇世界올림픽籠球三選手送別試合 午後八時 鍾路靑年會體育舘 觀覽料 下層三十錢、上層二十錢

謹告

就標 十八日當社 龍頭驛附近에서 軌道車와 貨物車의 衝突로因하야 多數重輕傷者를 내인 事故를發生하와 其負傷者되신 諸位께는 더욱 무엇이라 謝罪할 餘地가 업사올거니와 家族各位와 一般關係諸位께 對하야 무엇이라고 謝罪하올는지 참으로 罪悚합니다 即時 拜進伏罪하여야할것이오나 諸事가 激忙한탓으로서 玆에 紙面을 빌어 衷心으로 謝罪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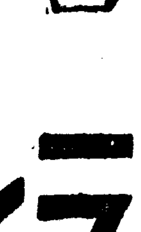
昭和十一年六月十九日

京城軌道株式會社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稻扱機를愛用하라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
今年에稻扱機는!

今秋의準備는只今하시오
(但定價半額以上先送注文者에限하야出荷함)
組立 二人用一臺 一人用一臺 (特價) 九七圓
農具品專門製作鑄造工業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電話櫻川(二)四一六 振替大阪一九九六一

國産 カッピー香水
斷然
他品의追從을不許하는品! 質優秀한高尙한芳香!
國産カッピー香水時代가왓슴니다!
良品은빗난다 豐香園製品

東京牛込 田端豐香園

아모리기름을실혀하시는분이라도
산뜻하고
꼭마음에맛게되는것은 조흔洋髮香

ランラン洋髮香油
란란

京城版

營業化한府學制
新府域民의非難頗高
地方兒童轉學生으로부터 多額寄附의賦課로

【永登浦】대경성건설이란명목이 레 실으나 조호나새로편입된신 부민들은 종전에비하야 납세상 으로나 기타여러가지 시설의리 용상으로 보아 모든점에 잇서 서 불리와 불편을 늣김따름인 대 특별히 아동교육에 잇서서 불편입된 후로는 다른지방에서 이사를온 관게로 부득이 전학을 식힐경우에 입학년은 이백원이상 이학년으로부터 삼학년까지는 일백이십원이상 사학년이상은 팔십원이상의 긔부금을 내지안흐면 아모리 자리가 남어잇드라도 입학을 허가치안는 부의내규가 새로규정되여 마치 영업화한 부학무제도에 대한일반의 비난이 자못놉다고한다

全朝鮮씨름大會— 今日부터開幕
京南支局後援으로

【京南】리태원보통학교 승격축하협찬회(梨泰院普校昇格祝賀協贊會)주최와 본사경남지국후원하에 리태원보통학교앞광장에서 열리는 전조선씨름대회는 예정한바와가티 금조 오전열시부터 막을 열게되엿다 본래 취지가 보통학교로 승격됨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는 경긔이니만치 동리내에서만자진해서 내노흔긔부금이 륙백여원에달하야 상품도 상당하다하며 또한 리태원으로서는 처음개최하는운동이라 연강일대의 인긔는 자못 비등하야 벌서 수상일전부터 동대회에 최고 우승권을 엇고저 피끓는 젊은 용사들은 아픔다루어서 우호로는 뚝섬(纛島)의정부(議政府) 련천(漣川) 왕십리(往十里)아래로는 마포(麻浦)파주(坡州) 김포(金浦) 룡산(龍山)등지에 백여명이 참가원을제출하야 룡양호박(龍攘虎搏)의백렬전을 예상하고잇다는데 당일은 또한 씨름뿐만이아니라 일류긔생들의 연주와 광대줄타기까지 겸처잇서 일대성황을 이루리라한다

貨物車뻐쓰를追突

십칠일 오후세시사십분쯤하야로 … 평조(大林組)화물자동차 운전수 김경룡(金京龍)(二○)이가 운전하고가든 경남(慶南)일천사백삼십상용차가 전긔뻐쓰에추돌(追突)되여 차장 리정희(李貞姬)(一九)가땅에 떠러저서 약십일간을요할상처를 다리에 바덧다고하며 방금영등포서(永登浦署)에서원인기타를 조사중이라한다

惡性飮料出沒!
夏節을마저서猛取締

최근 여름철을 당하야 시내각상점의 납분 음료수를 경찰에서 취체엄벌하다함은 여러번 보도하엿거니와 십팔일 오전에는 시내 가회정(嘉會町)일백륙십오번지 무덕호(文德浩)의 가게에서 몬지가 흠빡 석겨잇는 불결한 주류(酒類)를 발견하야 납분소주(燒酒)십여병을 압수하고 조사한결과 이는 동대문시장(東大門市場) 복전(福田)상점에서 가저온것이라는바 이룡입중처분하는것은 물론 이와가튼 불량품을 파는다른상점도 조사하야 용서업시처분하리라고한다

西大門署刑事 開城서猛活動
◇靑年二名을檢擧

【開城】십륙일밤 새로한시경! 경성서대문 경찰서 고등계형사대는 무슨단서를 잡엇슴인지 개성(開城)에 비밀리에 내려와가지고 그날밤으로 개성서의 응원을어더 부내고려정(高麗町)일백십이번지사는 문모(文某)란청년을검거하는즉시 경성으로 압송하고 또다시 동오시경에는 동정일천삼십이번지에 나타나 우모(禹某)란청년을 검거하야가지고 상경하얏는데 사건의 내용인즉 극비에부치나 우(禹)란청년은 오래동안 국경방면인 신의주(新義州)에잇다가 집안엔소식도업시 갑작스리 도라오자마자 그이튼날로 피검된것이라는바 사건이 여하히 확대될지자못주목중이다

金千代택시가 自轉車와衝突

【永登浦】십칠일 오후팔시오십분 시내 대도정(大島町) 금천대(金千代)택시 경제구천일백이십이호에 손님을 태우고 영등포를 향하야 운전수 하명민(成新)(二○)이가 조종하야 룡산역전(龍山驛前)을 질주할때에 아페서 한자전거에 올도커지안코 자전거로 달려오든 시내 동막정(東幕町)륙백구십사번지 김인식(金寅植)(二○)이와 정면충돌을 하야 김은 비틀거려이 오스려저서 만흔피를 흘리고 혼도한것을 즉시 룡산철도병원으로 옴겨 치료하는중인데 매우 위중하다고 한다

開城도문둥이騷動

【開城】근일경성서 문둥병자의 횡행으로 인심이 불안하다는중 실에 따라개성서도 엄밀감시이 퍼저 자못불안을 늣기고잇다한다

古屋修繕타가倒壞

【開城】부내남산정(府內南山町)륙이팔번지 김순옥(金順玉)(六七)이란 과부는 전재산 오막사리 고옥 한채밧게 업는바집이하도 허술하야 문간과 헛간을 개축할려고 지난십칠일 토역인부강성기(姜聖基) 김순모(金淳模)장영남(張永南)삼인을 시켜 공사를하게하든중돌연히집채가 문허저서전긔 강의 동허리를 내려덥처갈비ㅅ대가 불어저 생명이 위독하다하며 순모는 약일주일치료의 중상을 당하얏다한다。

問題重疊하든 松峴里日用品市場
來七月一日遂開市

【仁川】주민철거문제와 시장사용권인허문제로 허다한문제를입으키고 부민의주목을잇끌고잇든 송현리일용품시장(松峴里日用品市場)은 래이십일경에 그준공을보게되야 적어도 칠월일일에는 일체개점케하고자 방금준비에분망중이다 동시장내에는 채소급어류로부터 일반시민의일상생활에적절한일용품일체를 판매키로되엿다는데 가격등도 공정하야 일만소비자에게 편의를 도울계획이라하나 종행도로가 불충분하야 공급자로하야금 어떠한리익을줄지가 주목된다한다

詐欺賭博으로告發

【開城】개성부외 서면 개성리 두상동(開城府外西面開城里頭三洞)빨래 륙십이번지 김복성(金福成)(二七)이란 청년은 지난 사월 초순경에 부내 서본정(府內西本町) 김세진(金世鎭)방에서 대화정(大和町)일백륙십오번지사는 오종근(吳鍾根)(二七)과 더부러 한판에 십원 내지 이십원내기로 화투를 햇든바 약십오일간에 전긔 오종근에게 일백십원이란 다대한 금액을 일흔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야 소위 사긔도박이란 죄명으로 전긔 종근을 걸어 고소를 제긔하얏든바 개성서사법계에서는 이들 두명을 모다 도박범으로 인치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申請이遝至
第一回全朝鮮씨름大會 ◇仁川體育會主催

【仁川】인천체육회주최와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오는이십삼사량일간 송현리시장좌측광장에서 매일오후일시부터 개최키로 하엿다함은 이미보도 한바와갓거니와 벌서함흥(咸興)과 대구(大邱)등지로부터 신청이 답지하야 실로당일의 성황을 예상케할 아니라 본대회는 동체육회의년중행사로 선수권을 결정할것임에 벌서부터 사계의만흔 기대와 촉망을받고잇는데 지원자는속히 인천부윤복리 체육회로 신청하야주기를바란다한다

今日

第六回 全朝鮮中等籠球大會 第一日

日時 六月十九、廿兩日間(第一日……午後四時 第二日……午後二時半)
場所 延禧專門學校코ー트

◇第一日豫選=(A코ー트)A 普成對養正 B 徽文對商工 C 道商對中央 D 培材對二高 ◇同(B코ー트)E 大東對善隣 F 松高對協實 G 儆新對京師 H 靑年會學校對中等公民 ◇準準決勝=A勝者對B勝者、C勝者對D勝者、E勝者對F勝者、G勝者對H勝者

主催 延禧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京南

全朝鮮씨름大會

▲時日 六月十九、廿、廿一日(三日間)
▲場所 梨泰院普通學校前廣場
◇主催 梨泰院普校昇格祝賀協會
◇後援 朝鮮日報京南支局

우리들의學園이 (往十里公普篇)
初創期月謝勿驚五錢
波瀾萬丈의過去
—五萬住民을相對로單一校—
大旱甘雨·新校舍計畫

한발울의 비도나리지아니하고 가물기만하는날에 바람은 또어디서 온것인지 왕십리선(往十里線)은 홍진마창이며 날이 왜도이리무더워 전차안에는 쇠파리가 떼를지어 사람을 못살게구는 왕십리행전차는 점잔치못한 비유일지는 모르나 깨끗한 번소에 들어간것 보다 오히려 못한것갓다

상왕십리 정류장까지가 지리하기 짝이업다 정류장에서 남쪽으로 서너길되는 담장안으로보이는것이 차저간 왕십리보통학교(往十里公普)이니 긔구한력사를 위선좀 적기로하자

지금으로부터 삼십칠년의 녯적으로 도라가 명치삼십륙년시월 양주고을원으로잇든 고 홍태윤(洪泰潤)씨의 의분(義憤)은 문밧사람의 천시(賤視)와 무교육에 집중되며 부근일대와 문안유지의 동정을 어더가지고 푼푼히 돈을 모아 벽돌집 두채를 세우고 사립 왕신학교(私立旺新學校)라는 간판을 걸고 이듬해 측명치삼십칠년는뎃해 남부터 욱일중천의 긔세로 문을여럿스니 이것이 공립왕십리보통학교의 긔원이되엿것이다 그러나 원체긔본재산이라고는 업시 한푼두푼모흔돈이라 살님사리가 순조로 오래갈리치는만무하엿다 학교문을연지해도 채반구이지안허경영난(經營難)에 빠지고야마럿스니 당연이라면 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 경영당국자의 고심과 번민이야 참으로 말할수가 업섯스며 폐교(廢校)라는 비참한운명에 측면한 지방유지들은 다시한번 발분하야 온갓 방법과 수단을 다하야 긔본재산(基本財産)의 긔부모집에 노력한 공이 잇서 학교를 그대로 경영할수잇는것은 물론사십이년구월에는 상왕십리(上往十里)칠십구번지에 녀자부까지설치할수잇섯스니 그들이 남겨노흔 노력의자취는 브이지 안흘수업마나 컷든것을 우리는알수가잇다 이리하야 괴초는차차로 구더가기는 하엿스나 살님이넉넉할도리는 업섯슴으로 견듸다못해 사십사년에는 수업료를밧기시작하엿스니 그액수가 한달에단오전이엿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우수운감도 자아내나 그만치또한 선각자의 고심봉였을수잇스며 명치사십오년에는 견디다못해 지방비의보조(地方費補助)를 밧기로하고그대상으로일본내지인교원하나를쓰기로되엿다 때와 세상은 밧귀어 어언간 오년! 파란중첩한 사립왕신학교는 대정사년팔월삼십일일을최후로 왕십리공립보통학교로 간판이 밧귀우고 천고마비한 구월의첫날을복하야 문을여니 남자가 두학급에 예순일곱 녀자도 학급수로는 둘에 서른세명인데 선생은 교장외에 다섯분 조선천지를뒤집게한 대정팔년팔월에는 교사를 증축하고 딴살림을하든 녀자부를 모서다가 한식구를 만들엇스니 이로부터 현대 초등교육긔관의 면모만은완비한듯하나 원체가 빈약한 문밧사람들의 살님이라 소화삼년사월까지 죽을애를다써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니 여듧학급 되는데 십오년이나 걸려 오날까지나려온것이다

×

과거는 이러하거니와 현재는 엇더한가? 소화이년삼월이십오일부로 륙년제(六年制)의 인가를어든 왕십리는 지금 팔학급으로 남자가넷 남녀공학이 둘 녀자가두학급 생도수로는 남자가 사백아홉명 녀자가 백예순으로 합게오백륙십구명이다 졸업생은 남자 팔백팔십팔명 녀자이백오십팔명으로 합계 일천백사십륙명이며 회수로 남녀가다 스무회가되여잇는것은 다른곳에 비하야 자랑할점이다

끄트로 우리를다시 한번놀나게하는사실을 적고 붓을던질랴고하나 그것은 이왕십리보통학교야말로부근일대오만주민에게 유일한보통학교라는것이다 이오만이란수자는개성(開城府)인구에비등한것이며 그곳에는 보통학교가넷학급수로사십팔학급이니잇는것도학령아동의입학난이 매년과가티 점점심하여가는데 단하나에 팔학급이라는것은 참으로 놀낼만한수자이며 이수자를 완화하기위하야 부근일대에는 학술강습회(學術講習會)가 열하나이나잇서 약이천명의 아동을 수용하고잇스니이것은 참으로 목이말나 살수업서판우물에지나지못하는것이다 이리하야 부근일대오만주민은 사월일일 부에 편입된뒤 어데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나 현재 교사를 왕십리역(往十里驛)근처로옮기고 일약삼십학급의 거대한보통학교가 된다는 말이 하로밥비 현실화하기를 눈이 빠지도록 고대하는바이며 여기에서경성부민된 의이를 차질랴고 전폭적주의를 하고잇다는것이다。

(사진은 교사와회장)

婦人公論 【本日發賣】

七月特大號 特價六拾錢

大增刷大飛躍破天荒の大賣行

現代「女性の惱み」解答

「初袷」飯倉だより……島崎藤村
柔よく剛を制す(山王雜話)……德富猪一郎
時事總評(□今議會豫算通過□退職積立金法案□一般サラリーマンの退職□エチオピア問題の今後□相澤中佐に死刑宣告□婦人に關する新しい法律)……杉山平助
女性月評(□刑法改正案□濱松事件)……山川菊榮
婦人辯護士出でよ(僕の頁)……嶋中雄作
久しぶりに見る日本の女…舊姓田村 佐藤敏子

新連載長篇小說 大阪(佐野繁次郎畫)……藤澤桓夫
商業都市大大阪の心臟が逞しい七彩の虹に色どられてゐる蔭に、女の生活にも恋愛と悲惑と歡喜×と絕望が繰返へされてゐるのだ。第一回からして息づまるやうな面白さ!!

女學校ロマンス ○アンクルトム ○桐の歌 ○涙の誓

フルーツパーラア
メロン・ささきふさ
プレーンソーダー・北村小松
ところてん・邦枝完二
サルサパリラ・阿部ツヤコ
みつ豆・美川キヨ
白玉・長谷川時雨

讀切中篇小說 女の環境(新しい角度から、新しい女の生活形態―愛慾、嫉妬、悩み等々、女の裏面の辛辣な解剖)……武田麟太郎

一時日本の國は、全體的になんでも歐米の先進國の眞似さへすればよいと思つてゐた時代があつた。それが今は、反對に內へ內へと良い穴を見つけて、穴の中へ潜り込まうとする傾向になつて來た。だが如何に現代婦人を女大學の昔にかへさうとしても、あの健かに伸びた肢體の均齊を昔の窮屈にかへすことが出來ない。日本婦人の古習の美點を忘れて穿き違へたお先走りの態は、いつまでもないが、古いものは一概に美しいと思込んではいけない。間違つても文化の逆流を來すやうな反動的視線を寄してはならない。要は各自が愼重に反省熟慮して、正しい認識の上に、より健全なる生活の設計をこそ心懸ける時ではあるまいか!!

落葉日記……岸田國士(夏太郎への心の破綻、梨枝子の弘への變態は何如なる徑路を辿つて變形されて行くか。現代娘の心理解剖)
お孃さん……吉屋信子
女の日記……林芙美子(規矩子の女教員生活、同僚の瀨田との友情、彼女の魂野に展開する未知なる世界、悲痛なる人生の様々の姿!)
桃子の貞操……宇野千代(東京へ舞戻つた伊乃の女事務員としての生活、柘植への思慕瀨尾への不快益々男心といふものに加はる懷疑と煩惱)(待人來らず、ダットサン、悲しい思ひ出、時間借り―桃子、倫子、蓉子、三人三様の青春は如何に進展するか。)
男の一生……松本泰夫妻(虐げられた少年もいつしか青年となつて戀を知るやうになつた。)

嘗て試みられ嘗て成功せざりし、此の一大計畫が初めて本誌によつて完成されたのだ。これこそ明日のよりよき生活への設計圖でなくて何であらう。惱みを通してこそ眞實の生活と幸福への道は開けるのではあるまいか。貴女の手によつて、貴女の一生の生活の基礎の爲めに特筆大書して此の特輯を贏む。

銀幕の魅力ミリアム・ホプキンス・南部圭之助
進めオリムピック(我等が選手の意氣と熱・日章旗をあげるのは誰)……鷲田成男
生産のよろこび……內職・副業成功報告記(アンゴラ兎の飼養 雜作ない熱帶魚 蜜蜂の飼育 家庭温室園藝 お茶代りのハブ草 養鶏のたのしみ)
無月經の危險……醫學博士 吉原りゅう子

ふるさとの若き女性へ 四國雜記……菊池寬 田町の土居……岡田禎子

十字架を護る……長田エリザベット(府下清瀨村の一ベトレムの園に時ならぬ嵐、八人の修道女と共に専念奉仕の生活から長田女の眞相を記した手記)
さまよへる修道尼……長田幹彦(妹エリザベットの樂園脫出を機會に、兄としての立場から、愛情、宗教、人生の問題について懇々として說く長田幹彦氏の熱涙の一文)
燕岳の乙女……世田大五郎(季節外れの十一月燕小屋に一人の女が漂然と現れた、見る影もないやつれた姿、彼女が今夏大村順一等の一行と登山した日の撫子であることに誰れが氣付かう)
妖女マタ・ハリの銃殺……瀨戶口寅雄(女の愛と嫉妬、この二つのあざなへる繩が如何に辛辣に一人の女性の全生命を左右したか?)
崩れる母と娘……重野辨逸(青酸加里と短刀をふところにして、變心した娘の家へ談じ込んだ元敎員の筆者が、その間の事情を告白し、合せて現代娘氣質の恐しさを痛訴せる哀切の一文。)

ママへのたより……諏訪根自子(音樂修業の旅に出てはるばる白耳義に到着した根自子さんの故國への第一信。)
□夏場所大相撲見物記……サトウ相撲波……ヨコヤマ小粒岳
オフセット三色版 子に語る母の讀本 トルストイのお話……野上彌生子
★日章旗に祈る(一家の事情で出場出來ずベルリンの競技場に根をのむ石津さんの悲痛な一文)……石津光惠
夏にある女の危機を護る會(夏の盛り場に跋扈する不良少年少女の憎むべき手口その他夏にある危險の諸注意。若い婦人は勿論、父兄必讀の書。)

批判 彼女の場合
□『母親』の反省(家庭教育の立場から―お定の事件に對し家庭の母の反省すべきものは何)……平塚らいてう
□戀愛の怯懦を戒む(愛と本能の問題―假面を脫ぎすてた人間の本能そのものゝ解剖)……石原純
□誰にもある傾向(精神病學的に見て―獸的行爲として憎むべきか人間本然の姿として許すべきか)……諸岡存
□一つの標本として(社會的見地から―マゾヒズム、サディズム、プラトニックラブ、事件と興味)……杉山平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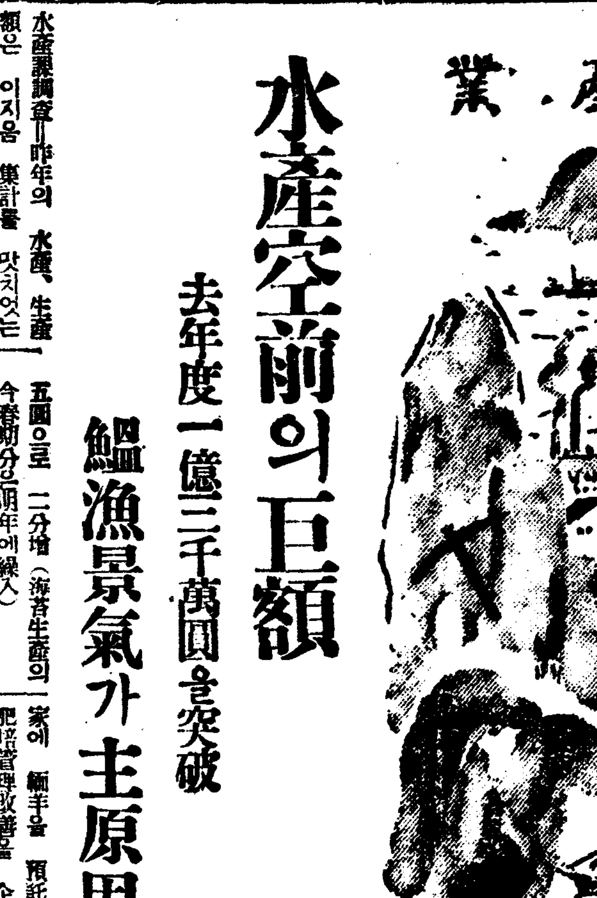
獵奇の主人公 お定の生ひ立と環境(徒らに社會の汚辱に面をそむけるばかりが現代人ではない。これを批判し今後に資すべく問題としてい、彼女の生立ちと環境を克明に描く。)

▼生活力なき夫と離婚し他に嫁すべきか 【批判】妻と母の途は一つ……金子しげり
▼女中と夫の仲を知らざりし後添の妻 【批判】より廣い視野がある筈……平塚らいてう
▼三度結婚に破れ日蔭者の生活に泣く女 【批判】自分を不幸と思ふ勿れ……廣津和郎
▼妻子ある恩師を思ひ切れぬ元女教員 【批判】犧牲的母性愛に生きよ……木村松代
▼廢人の父と亂倫の母に泣く婚期の娘 【批判】靑年の眞實に生きよ……柳原燁子
▼夫の死後遺産をめぐりて母子の嘆き 【批判】私生兒では萬事休す……片山哲
▼子供に叛かれ再婚せんとする未亡人 【批判】再婚はよいけれど……加藤久子
▼子を連れて離婚した女の生きる道 【批判】子供をかへし心の信養を……今井邦子
▼學資を貢いだ男に捨てられんとする女 【批判】自ら招いた『年期女房』……茅野雅子
▼一途に男の愛情を過信した家出孃 【批判】母としての權利を守れ……森田たま

◈戀愛問題 □無理心中で生き殘った私 □二人の戀人を持ちて □戀人に打明けられぬ過去の秘密 □主家の長男と悲戀 □無態なる上役の横暴 【批判】片岡鐵兵
◈結婚問題 □再婚の妻ゆゑに□嫉妬に□婚養子の無態□強いられた結婚 【批判】金子しげり
◈夫婦生活の問題 □ドブ鼠のやうな生活□船員の妻□酒癖の夫 【批判】今井邦子
◈肉親間の愛情 □不品行なる父に泣く一家□母よ娘の心に何日かへる□繼母故に歸らざる兄□姉妹が泥沼におちるまで 【批判】森田たま
◈義理人情の問題 □姑と夫の仲のよさ□貰はれた娘 【批判】宮田多賀子
◈職業婦人の問題 □母ならぬ母□どん底に喘ぎつゝ
◈青春の問題 □見失った自己□戀人と男性の矛盾□男といふものは□十八才の不安 【批判】柳原燁子
◈迷信の悲劇 □呪よ我にかへれ□祈禱師の犠牲となりて□仕家なき丙午生れの女 【批判】竹田菊
◈性の問題 □妻の資格□不自然な三角關係□七才で處女を失ふ□多産の悩み 【批判】高島米峰
◈特殊問題 □わが醜貌故に□前科者の汚名に泣く□細細の恐怖 【批判】鈴木甚吉
【批判】福島貞子

女性よ强く聰明に……嶋中雄作

產業



水產空前의巨額
去年度一億三千萬圓을突破
鰮漁景氣가主原因

水產業調查=昨年의 水產、生產額은 이지음 集計를 맛치엇는바 鰮漁景氣의 現出로 生產額은 合計一億三千七百三十三萬八千五百六圓으로 前年에 比較하야 實로 二割九分三厘의 激增이으로 昭和三年의 一億一千四百萬圓을 凌駕하야 未曾有의 巨額을 示하얏다 그內譯은

▲漁獲高=六千九百四十一萬九千五十五圓으로 前年에 比하야 二割一厘의增

▲水產製造高=合計六千五百一萬三千六百五十六圓으로 前年에 比하야 四割二分七厘의增

▲養殖高=二百九十萬五千八百十五圓으로 二分增(海苔生產의 今春期分은明年에繰入)

이를 各道別로보면 咸北의 二千八百七十九萬九千圓、咸南의 二千八百七萬六千圓이 一、二位를 占하고 各히 咸北은 前年比六割四分五厘、咸南은 七割八分一厘의 激增이고 그다음에 慶南一千九百卅八萬三千圓(八分四厘增) 全南一千八百十二萬八千圓(四分增) 江原道一千六百十九萬九千圓(三割五厘增)이며 以下 慶北、黃海、平北、京畿의 順位로 昨年第一位에잇든 慶南은 鰮景氣圈의 外에 잇서 減退하얏다

咸南一帶苹果 大減收難免
總體로三割減豫想

豐年에 依한 隔年結果와 芽花期의 天候不順으로 咸南道의 苹果는 例年에드믄 結果不良인데 昨年에 比하야 全體的으로 三割가량의 減收가 豫想되다고하며 種類別로는 紅玉이 가장不良하야 道內苹果의 主要產地인 安邊郡의 紅玉은 八、九割의減收豫想이며 咸興附近、元山一帶의 有名한 產地도 紅玉은 四五割의 減收를 難免할 狀態에 잇서 果樹業者는 憂慮에 싸혀잇다하며 그리고 今秋 苹果市勢는 凶作으로因하야 相當히 高價를 示하리라고한다

養蠶小作에 緬羊을預託

日濠關稅戰의 展開로 朝鮮의 緬羊計畫擴充은 各方面에서 期待를 갖고잇는데 最近 群是、鐘紡兩製絲工場이 養蠶小作地의 農家에 緬羊을 預託하야 桑田의 肥培管理改善을 企圖하고잇슴은 緬羊飼育에 一新生面을 開拓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되고잇다 群是는 忠北에서 一戶當二頭를 預託하고잇는바 相當히 普及될 可能性이잇다 한다

漁業組合에 指導員配置

總督府殖產局에서는 漁村更生에 新拍車를 加하기爲하야 十一年度부터 全朝鮮百八十九漁組에對하야 各히 指導員을 配置하야 人的要素의 充實을 圖하기로되엿는데 各道의에 補助額은 如左하다(單位圓)

京畿	八七五	忠南	七五〇
全北	七五〇	全南	五五〇
慶南	四二五〇	慶北	一六二五
平南	一二五〇	黃海	一二五〇
江原	二二五〇	平北	一二七〇

波瀾重疊의 生絲市場趨勢
繭價는前途不透明

去十二日 四、五十圓가량 大暴騰을 演하야 七月限七百五十圓臺、先限七百三十圓으로 月初의 低價에서 百圓가량의 回復을보인 淸算生絲는 十三日一反落을 演하야 先限은 七百圓臺의 關門을割하야 이로 繭買一巡에依한 騰勢一息이 아닌가고생각되든바 日曜日을지고난 十五日은 米國人絹界가 近近値上을 하리라는 入電이 買氣를 刺戟하야 一步前進의 高價를 更新하얏스나 그도 瞬間으로 後場에는二三十圓가량의 反落을 演하는等 波瀾重疊하야 前途難測이다

◇

爲先 最近의 絲價回復의 原因을보면 第一은 原料繭價가 沼津初市當時의 豫想과 틀리어 堅調를거러 一部에는 四十掛의 소리조차 들리게되엇슴이다 三十四掛로 開市된 沼津初市當時에는 이대로 나가면 物의 出盛時에는 參入三十掛入도 可能하야 絲價 六百圓으로도 넉넉히 採算이되리라는것이 一部製絲家가 노리고잇든바이다 事實 今年의 製絲家는 購資金이 窮塞하다 빗싸게사려도 돈이업스면 할수업는일이다 이리하야 一般으로 繭價의 低價豫想人氣를 생기게한것이다 그런데 農林省發表의 早植二府二十四縣의 春蠶收繭豫想은 前年보다 一割一分七厘減을示하야 繰立豫想의 六分八厘減에 對하야 減產率은 훨씬 만흐기때문에 古繭의 準備가업는 製絲家는 하는수업시 仕入을 急히하려고 이것이 繭價高를 誘致하게되엇다

◇

이原料의 高騰傾向에 加하야 出廻의 商略的 遲延도 當然히 海外의 新絲約定이 先進行되고잇슬터인데 今年은 例外的으로 느저다 米國의 消費는 三萬俵를 超過하지못하야 甚히 不振한 터에 供給地에서는 原料低價豫想으로 그도 當然하다고 할수도잇다 그러나 이로서는 繭出廻으로서는 장사가되지안는다 때맛춤 春蠶減少를 豫測하야 海外와 內地의 先約을 高價로 進展식히려는 商策이 相當히 활발로 行되어잇다 卽 高價로 海外와의 先約을 한後는 日本內地의 實需筋을 轉賣하야 低價仕入을 하려는 배장이다 昨年그手段을 써서 相當한 成績을 보앗슴으로 이러한 買物이 盛히되는등 絲價의 好轉도 期待안되는 바가 아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買物에 雷同하야 目前的 投機買도 나타나고 또 昨秋 千圓市勢當時에 盛히 뛰노든 紀州의 製絲家吉村等 低價로 投賣하기도하고 乘勢하기도하야 危險한 재간을다한다 또 期近買玉을 實物로 바들 態度를取하는等 가진것을 다하는形便으로 買方의 態度도 絲價의 回復에伴하야 積極的으로 되어가는 모양이다

◇

그러나 絲價의 將來를 無條件으로 樂觀하여도조흘는지 엇던지 問題이다 事實로 繭은 生絲와 競爭相對의 米作價가 七百圓이나 빗싸다 生絲와 競爭相對의 米國人絹界도 今年第一回半期의 生產高는 昨年의 同半期의 生產高에 比하야 七分强이 增加되어잇서도 供給이 不足한 狀態로 近近 一磅五十三仙의 値上이 豫想되고잇다 이 豫想이 實現되면 一磅五十六仙의 實價로되어 生絲는 그二倍半이 妥當한 市勢라고 假定하면 一磅五十仙 이 絕對의 最低價라는 見解도 생기나 海外의 生絲에對한 高價警戒는 意外로 强하야 日本의 生絲高에 追隨할것갓지안타 日本도 이제로부터 新絲의 出廻期에 入하야 春繭이 빗싸면 夏秋繭增產의 必然性도 생각지안흐면안될 뿐外로 片倉、郡是、其他의 大製絲家는 絲價가 빗싸지면 질수록 賣繋의 實績을 떠붓고잇다 輸出商의 擴張賣가 壯絕한때 此等 實需賣를 高價豫想의 投機買로 잘 消化하야갈수 잇슬가 米國의 需要가 七百圓이든 八百圓이든 果然追從하야 올는지도 不安하다 例를 드려말하면 昨秋供給不足豫想으로 千圓臺를 出現한當時 누가 今年의 端境期에 六百圓臺의 低價가 나오리라고 豫想하얏스랴 無穿가운것은 人氣이다 今年의 新絲도 그人氣의 動向에依하야 때로는 上下모다 脫線市勢가 出現할것은 避치못할것이나 原料仕入最盛期와 新絲出盛期의 接近을따라 理想과 現實이 反映되야 絲價는 波瀾을加하야 가지안홀가 하는觀測이잇다

濫獲의弊害로 慶南北漁獲漸減
水產當局에서調查

濫獲에依한 魚族의 絕滅 延하야서는 沿岸漁業의 衰滅은 日本內地의 漁業組合共通의 苦悶으로 되어잇는데 朝鮮의漁業은 이點에 잇서서는 全然 處女地이며 이러한 念慮가업는바 一兩年來 慶南北에서 漁獲高의漸減이 表面化하얏다 卽 沖漁業의發達 就中 底曳等의 發達은 魚類의 根絕을 生하야 慶南과如한은 漁業者의 激增과相俟하야 漸次로漁獲이 激減되엇다 殖產局에서는 그推移를 重大視하고 水產課、水產試驗場에서 調查를 行하기로 되엇다

人造羊毛時代!
羊毛代用品
陸軍에서研究完成

對濠報復通商擁護法은 드듸어 發動을 보게되엇는바 多量羊毛消費者인 陸軍에서는 通商擁護法을 側面에서 擁護하야 徹底的으로 그效果를 發揮식히고저 일즉부터 被服本廠、千住製絨所等에 研究식히고잇든 代用品「스테-풀·파이바-」에 依한 軍服의 調製를 企圖하고잇다 卽陸軍이 이때까지 研究한바에依하면『스테-풀·파이바-』製의 軍服은 그强度、防寒度에 잇서서 決코 羊毛에 지지안코 耐久力의 點으로 退色이 업슬 뿐만아니라 羊毛에 比하야『코스트』가 싸고 戰時經濟、封鎖等의 境遇도 若干의『펄프』를 輸入하면 足함으로 陸軍으로서는 將來 全軍將兵의 軍服을羊毛에서『스테-풀·파이바-』로 轉換하려고 일즉부터 研究하고 잇든것이다。이에對하야 陸軍當局에서는 말하되『日本의 羊毛輸入額은 一年約一億九千餘萬圓에 達하는데 그中 濠洲로부터 約一億八千萬圓餘를 輸入하고잇서 日本이 輸入超過로 片貿易인바 當然 日本은 濠洲에 對하야 大顧客이다 相對가 이關係를 無視하는 以上 斷然 抗爭할뿐이나 陸軍으로서는 濠洲로부터 羊毛가 오지안허도 決코 困難을 밧지안는다 이미『스테-풀·파이바-』의 軍服調製에 成功하얏다 羊毛는 無用하게될것이다』

春繭共販消息一束

▲長湍 京畿長湍郡農會에서는 例年과如히 春繭共同販賣를 來二十日부터 邑內、九化、渭川、小南四個所에서 開始한다는데 今年은 降雨稀少로 飼育이 大體良好하야 販賣高十萬圓臺를 突破한豫想임으로 農村困窮은 多少緩和되리라는바 共販日程은如左하다고한다

邑內 自六月二十日至七月三日
九化 自六月廿一日至七月四日
渭川 自六月廿三日至六月廿九日
小南 自六月廿三日至六月廿九日

▲榮州 慶北榮州에는 今年春繭共同販賣를 去十六日부터 榮州乾繭場에서 開始하엿다는데 例年과가티 十七日부터는 豐基、平恩、浮石等三面에서 直接共販을 實施하리라는바 繭價는如左하다

▲特等三圓五十六錢 ▲一等三圓二十六錢 ▲二等 二圓九十五錢 ▲三等二圓六十五錢 ▲四等二圓三十四錢 ▲等外二圓四錢

▲安溪 慶北義城郡農會에서는 製絲家인 片倉會社와 協議한結果 지난 十六日부터 安溪多仁兩販賣所에서 春繭共同販賣를 正式으로 開始하얏는데 比安一帶의 雹災地를 除한外에는 全般的으로 養蠶成績이 良好하야 比前年一割以上의 增收를豫想中인바 그價格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特上 三圓七十錢 ▲二等二圓九十錢 ▲特等 三圓五十八錢 ▲三等 二圓六十七錢 ▲一等 三圓二十八錢

春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種別	最高	最低	買脚	掛目	數量
六·一五	全南長城	白	三·六六	二·七四	三·五三	三〇·五	七四三·〇貫
六·一五	全北南原	白	三·三九	二·五一	三·四〇	二七·九	二三六·六
六·一五	忠南燕岐	白	三·六六	三·一四	三·五一	二八·五	一八·〇
六·一五	忠南牙山	白	三·六三	二·五六	三·〇八	二八·三	五六八·九二
六·一六	全南咸平	白	三·八二	—	三·八二	三一·九	五·九
六·一五	慶南密陽	白	三·三六	二·二四	三·二四	二八·五	三七六·〇〇
六·一五	全南潭陽	白	三·六六	三·六三	三·六三	三〇·五	三二一·八五
六·一六	全北完州	白	三·七〇	二·一四	三·七三	三〇·五	六〇〇·〇
六·一六	全北南原	白	三·八三	二·三九	三·六一	二九·九	四九二·〇
六·一六	慶北尙州	白	三·六一	二·三九	三·三九	三〇·五	二五九〇·〇
六·一六	慶南蔚山	白	三·八四	二·四〇	三·三六	二九·八四	五四·七
六·一六	忠南牙山	白	三·八六	二·六〇	三·二七	三〇·二	一〇七〇·八六
六·一六	忠北沃川	白	三·六五	一·九九	三·一四	二六·四	三三五·〇〇
六·一六	忠北淸州	白	三·七〇	二·一四	三·四六	三〇·五	四二七·〇〇

新昌明太子組合總會

【新昌】咸南新昌港明太子移出組合第一回定期總會는 組合員過半數集合으로서 지난六月十三日午後一時부터 新昌漁業組合에서 開催되엿는데 再昨年과 昨年은 諸般制度가不備하여서 會議進行은 甲論乙駁으로 豫想보다 二時間延長을 보앗다 따라서 今年度는 制度를 在來의 弊를 一掃하고 同組合基礎確立을 못하야 遺憾됨만한점 이업도록 事業遂行에 關하야 處置를 講究코저 道當局에 陳情하야 委員派遣의件等 左記各事項에亘하야 討議하고 午後五時閉會를 宣하엿다

一、檢查員駐在의件
二、事務所指定의件
三、規約改正의件
四、新年度豫算編成의件
五、監事選擧의件

前橋春繭市況

【前橋電話同盟】十七日의 前橋繭市況은 如左하다

出廻高(黃、白共)五三、〇〇〇貫

▲白繭 高價 四圓八十錢 低價 四圓四十五錢 買脚 四圓六十八錢 掛目 三十六掛半

▲黃繭 高價 五圓 低價 四圓五十錢 買脚 四圓八十三錢 掛目 三十五掛半

肥料로부터
鰮粕新用途
食料品으로

最近 鰮粕의 生產이 漸增되고잇는 此際에 鰮粕의 食料化에 成功하얏다는 快뉴-스가잇다 從來鰮粕은 肥料로하거나 피쉬-밀로 加工하는外에는 거의用途가 업섯는데 最近 東京油脂合同株式會社에서는 그의用途에 對하야 研究한 結果 鰮粕을 粉末로하야 完全히 油分과 臭氣를 除去하기에 成功하얏다 그는『옥시-밀』이라 名稱을 부치고 그를 小麥粉과 半半混合하야『煎餅』(一種의菓子)과 팡을 製造하야본結果 榮養價가 豐富한우 風味가잇서 훌륭한 食料品에 成功하얏다 이와가티 鰮粕이 菓子의 原料로서 新用途가 開拓되는것은 將來 鰮粕의 過剩이 豫想되는 이때 斯業界에 크게 期待를 가지게하는터이라한다

公共產業貸出金用途 (四月三十日現在)

用途別	口數	金額(圓)
金融組合聯合會貸付	三三	三·七四三·七九九·五三
行政	一五四	五六三·三六六·二七
敎化	三〇八	二·三三一·一四四·〇四
衛生	一四六	一·七九六·六八九·四三
交通運輸	一三五	五六四·一五八·一三
水利事業	九一六	七三·五三三·二九六·三三
土地改良	五三一	一九·二四四·〇三九·六三
農業	三·九四七	九一·六七六·四四八·九七
林業	六九	四三〇·三三三·五三
蠶業	一〇〇	八五九·四七九·三八
畜產	三六九	一·三三九·八〇四·四六
工業	五三三	二·九四四·二六七·二六
水產	二四三	六·五五三·六〇八·五四
電氣瓦斯	二六	一·〇八一·〇五五·七九
釀造	二五五	一·五五一·三二八·六四
土木	八六	一·〇三三·九一八·五四
鑛業	三六	三二八·三七八·三七
商業	三·一六八	二九·七七〇·九一五·四〇
土地家屋	三·七二〇	一九·五五七·二九九·五四
舊債整理	一·四〇四	九·七九七·〇六一·七〇
他	五四	三五〇·三三九·八六
合計	一四·六六四	二六七·〇五〇·八三三·二二
備考 前月幾高	一三·七六三	二六五·三六九·七五三

양배추

양배추(캬베추)는 그需要가 느림감을 따라 栽培도 만히하게되엿는데 特히都會地近郊의 栽培는相當하다 벌서 溫床을 버서나 定植한지도月餘요 지금은 高原과가티 주먹만콤커서 무럭무럭 자라고잇다

咸南沿岸水產業
各種水產資源이豐富
特히加工方面에進出

文川支局 一記者

概況

咸南沿岸은 그海岸線延長이 一三〇里에 亘하고 比較的 屈曲이만흐며 또大小의 島嶼가잇슬뿐아니라 南下의 리만寒流와北上의 對馬暖流가 交流하야 寒暖兩性에 屬하는 魚群의 棲殖에 適當함으로 水產의 大宗이되는 明太魚、鰮魚를 비롯하야 鰊、鯖、毛蟹、牡蠣、其他모든魚介漢類의 分布回游가 만코 또 干滿의 差가 別로업서서 朝鮮屈指의 水產地로서 潮流、氣象 그他의關係로 一張一弛는 업지 아니하더라도 新浦의馬養島、永興虎島、德源의麗島와 가튼것은 그代表的漁場이다

漁期는 海岸 그他의 關係에依하야 一定치안흐나 重要한 魚介類의 習性과 漁撈狀態에依하야보면 大體明太魚十月—二月 鰮五月—六月 九月—十一月 鰊二月—五月 鯖六月—十月 鰽九月—十一月 鱈一月—十二月 海蔘九—四月 毛蟹九月—三月 貝類四月—十一月 牡蠣九月—四月 等이요 漁具는 斯業의 發達에伴하야 改良式漁具로서 漁業의 種別에依하야 相異하야 多種多樣하나 角網、擧網、小台網、落網、揚網、地曳網、揮羅網、敷網、手繰網、巾着網、流網、底曳網、刺網、流刺網、延繩、鯊網等인바 此等에依한 漁利는 年產額이(昭和九年) 漁獲高로 六百八十餘萬圓 製品生產高가 八百九十萬圓에 達하고잇다

昭和十年中 各沿岸 水產業의 實情을 보면 漁撈其他에 從事하는 戶數는 漁撈가 九、一二三戶 養殖이 四一戶 製造가 九一三戶 計一〇、〇七七戶이오 船舶은 漁撈用朝鮮型 及 此에準하는船舶 三、二四一隻 發動機船 七五隻 運搬用朝鮮型 及 此에準하는船舶七隻 發動機船五九隻 計三、四五二隻을使用하고잇다

近年의 水產業은 當局의 積極的指導와 業者의努力에 依하야 漁撈養殖製造가 모다 長足의進步를 告하고잇는바 特히製造品은 食用과 非食用品의 兩方面으로 研究하야 專혀 技術的으로 品質의 向上에 意를두어 生產販賣가 모다 良好한成績을내고잇다 干明太는 全朝鮮各地를 消費市場으로하는바 移出檢查를 要치안코 그副產物인 明太卵及 肝油는 道外搬移出檢查를 經하야 肝油는 特定商人의 手에依하야 阪神方面으로 明太卵은 朝鮮內는 勿論日本內地 滿洲方面에 輸移出되는바 檢查高의 約三分의二는 關門地方이 占하고잇다

海蔘、鰒鯖、干玉筋魚、干鱈、牡蠣、淡菜、干北寄貝、煮干鰯、鹹鰊、鱈鹹詰、鮑 又는蟹罐詰油肥等은 外國市場에 進出하고잇다 그中 蟹罐詰은 水產出品中王座를 占하는 重要品으로서 그名聲이 높다

滿撈와養殖

沿岸에는 十一個所의 漁港이 잇서 各各 特色이잇는데 元山、西湖津、新浦港이다 이漁港을 根據로 하야 各其 近海沿海에서 漁撈에 從事한데 水產業의 發達과 業者共同利益을 期하기爲하야 各港에 漁業組合이 設立되여 漁撈의 指導資金의融通 漁獲物의寄託販賣等을하는外에 明太魚、鰈、毛蟹數의 底曳網漁等을하는 水產組合과 海蔘、其他深海魚介數의 採捕製造販賣를 目的하는 潛水器漁等의 特殊會社가잇다 또 一方池沼湖川에 公魚、鯉鯽魚를 淺海에는 牡蠣의 養殖을 하고잇는데 前者는 水產試驗場에서 魚卵을 人工孵化하야 放流又는他所에 移殖식혀 相當한 漁獲高를 내는데 高原郡德池江鮭魚가튼것은 그代表的의것이요 後者는 永興港內永興面、文川郡 明洞面、虎島面、古寧面、德源郡德源面、鎭坪面 淺海의것인데 面積이 養殖四百九十七萬餘坪 專用一千六百萬坪이요 採捕高가 二萬六千圓 七百圓에 達

賣買狀況

各漁港에는 漁業組合에 잇서 組合員의 漁獲物을 委託販賣를하고 邊僻漁村에서는 任意販賣를하고잇다

이와가티 賣買되는 魚介數의 分散狀態를 보면—明太魚는 洪原、北靑이 各二割、咸州、元山이 各四割 生鮮으로 地元의消費 又는 京城、平壤、大邱、湖南線方面에 搬出이만코 其他는 水產製造用에 씨우며 鰮魚는 鹽乾用에 鯖魚、鰊魚는鹽藏用에 鰮魚는 그大部分이 油肥用에 供給된다

三大漁港의 重要魚介類의 賣買高는 左와如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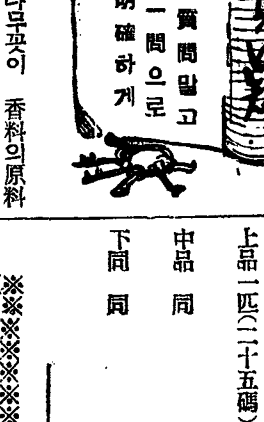
元山	一、三〇二、九〇三圓
西湖津	八六〇、〇〇四圓
新浦	二、九〇六、三七五圓

製造

沿岸各地에서 水產物의 製造에 從事하는 者는 純然한 製造業뿐이아니요 漁撈兩方面에 亘하야 一連托生的으로 水產業에 從事하고잇는데 各港에 漁業組合이잇고 其他에 鰮油肥製造業水產組合 輸出鹽魚水產組合이잇고 또明太魚加工 卽 干明太製造의 東海水產會社 冷凍品製造를目的하는 元山冷凍品會社等의 特殊會社가잇다

水產製品으로는 干明太、鰮油肥를 비롯하야 多種多樣한바 咸南水產의 王座를 占한것은 干明太、同卵、肝油、鰮油肥、罐詰等이다 干明太는 殆半이 元山郡에서 生產하는바 咸州、洪原、北靑、利原의 各府約一千個나되는 盛況으로 製品은 風土氣候의 天惠로 前津產이 最優良하야 消費市場의 實買標準이되어잇다 鰮油肥는 同製造品水產組合統制下에 元山、三湖、前津、新浦、新昌、遮湖、群仙、端川 各港에 支部를두고 總製造工場三八八個所인데 近代科學的으로 設備된것은 新浦뿐이요 其他는 手工業으로 이것을 淸津 長箭의것에 比할때에는 아주 幼稚하다 邊僻된 漁村은 論外로하고 各漁港에잇는 工場에 共同作業場 又는 貯油탕크等을 設備하야 元費와 手數를 省略할 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

罐詰品은 元山灣과麻牛島에 新鮮罐詰會社 西湖津에 山崎 前津에 宮本 新浦에 倉澤 山陽商會 新昌에 小林 利原에 熊谷 森山各工場이잇서 毛蟹罐詰을 生產하고잇는데 그中에 蟹罐詰이 前述과 如히 王座를 占하고잇다 昭和十年中 釜山水產檢查所에서의 出品檢查高가 二十一萬四千餘打에 達하는데 咸南產이 七割四分 江原產이 一割四分四厘 慶南產이 三分七厘 慶北產이 三分五厘의 比例를 示하고잇다



問 질네나무꼿이 香料의原料가된다하오니 山村副業으로 將來有望합니가 그將來性과 經營法을 下敎하시오 또現在 此를 購入하고잇는곳도 敎示하옵소서 (沃川郡伊院面開心里 趙鳳鎬)

答 질네나무꼿은 香料分이 稀薄한까닭에 別般事業價値가 업다고합니다

問 纖維性 植物로 製紙를研究코저하오니 製紙法書籍及 製紙用藥品名 販賣所의 住所를下敎하여주심을 仰望하나이다 (海州郡梁野 未覺生)

答 東京市京橋區京橋三ノ四 化學工業時報社扱 米谷稔著『パルプ及製紙』七十錢 東京市神田區駿河臺北甲賀町二七『紙業月報』(月刊)

問 洗濯石鹼原料 硬化油의製造法을 (初步者가 製造코저하오니 詳細히)下敎하시오 그리고鯨油의 脫臭法及 前記에對한 參考書、洗濯石鹼原料商의 住所도 同時에 敎하시옵소서 (慶南蔚山邑 一讀者)

答 硬化油는 初步者로는 到底히 製造不可能하며 鯨油脫臭法은 現在 硬化外에는 完全한 方法이 업습니다 參考書 東京市京橋區京橋三ノ四 化學工業時報社發賣 中村三男著『油脂及其製法』七十錢

問 馬鈴薯澱粉製造販賣所와 價格及 能率에 對하야 下敎하여주시오 (江原道 一讀者)

答 黃金町二丁目 泰明商會出張所에 問議하시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〇八六	金銀鑛	京畿安城郡金光面 忠北鎭川郡栢谷面	五月二十六日	完州郡參禮面 東亞興業株式會社
一三〇八七	同	京畿安城郡金光面	同	同
一三〇八八	同	全北長水郡溪內面 溪南面	同	全州府相生町 林永熙
一三〇八九	金銀銅鑛	平北寧邊郡百嶺面	同	新義州府常盤町 代表者 片山久 同眞沙町 松島順次郞
一三〇九〇	金銀銅鑛	同定州郡高安面 龜城郡五峰面	同	鎭南浦府龍井町 姜偉情
一三〇九一	金銀鑛	慶北漆谷郡北三面 若木面	同二十七日	京城府蓮池洞 成禮慶
一三〇九二	同	平北泰川郡江東面 寧邊郡八院面	同	平壤府大和町二丁目 代表者 吳龍 泰川郡江東面 朴李鳳
一三〇九三	同	京畿富川郡德積面	同	京城府桃花町 金完植
一三〇九四	金銀鉛化鐵鑛	江原金化郡遠北面	同	江原道長淵面 代表者 李元載 陽德郡陽德面 金文實
一三〇九五	金銀鑛	慶北金泉郡甘文面 善山郡舞乙面	同二十八日	大邱府南城町 徐鳳來
一三〇九六	水銀鑛	平南孟山郡玉泉面 德川郡蠶島面	同	東京市日本橋區小舟町 小原俊二
一三〇九七	金銀鑛	平北龜城郡東山面 龜城面	同二十九日	新義州府眞砂町 朴正燦
一三〇九八	硅砂	京畿富川郡龍遊面	同	京城府漢江通 吉田大吉
一三〇九九	金銀鑛	咸南長津郡新南面	同	長津郡新南面 池源永
一三一〇〇	同	江原江陵郡旺山面	同	京城府大和町 代表者 淸助 神奈川縣鎌倉郡鎌倉町 室井貫一郞 天隱町 岡崎榮二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六八五	忠北淸州郡四州面 淸州邑	五月二十六日	洪淳源任意脫退
一〇〇七四	江原原州郡富論面	同二十七日	李源任意脫退
一〇二九〇	同	同	同
一〇〇七四	同	同	吳錫鳳任意脫退
一〇二九〇	同	同	同

特產市勢
【本報支局特信】

▲安東(十六日)

◇安東布

上品一匹(二十五碼)	自 九、〇〇	至 一一、七〇
中品 同	自 七、〇〇	至 八、九〇
下 同	自 三、九〇	至 五、九〇

▲江西(十七日)

正粗陸羽	一斤	〇、〇八七
同 日出	同	〇、〇八三
同 愛國	同	〇、〇八五
小米	一石	一四、〇〇
大麥	同	八、〇〇
大豆	同	一〇、〇〇
綠豆	同	一三、〇〇
小豆	同	一三、〇〇
蕎麥	同	一五、〇〇
粟	同	一六、〇〇

◇綿座布團地 一反(十二碼五分) 自 三、八〇 至 四、五〇

日用商品市況

十八日 京城府內 海產物市況을 보면 大體다음과갓다

▲明太 保合

乾明太는 朝鮮內產의 入荷는 依然적고 北海道產의 入荷가 普通程度로되고잇는데 市勢는 한짝(二十두름)에 對하야 良品二十二圓五十錢으로부터 劣等品은 二十圓程度의것이잇다

▲조긔 活況

乾조긔는 인제로부터 出廻가 旺盛할 時期이다 現在도 入荷가만흐며 賣行도 良好하야 今日 市勢는 한두름(二十尾)에對하야 良品八十錢으로부터 그以下 五十錢 乃至 二十錢까지하는것이잇다

▲大口魚 小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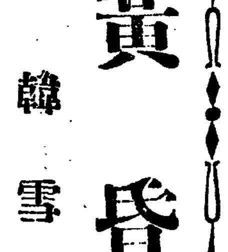
乾大口魚는 最旺需要期가 고개넘기는하얏스나 入荷가 만흐며 賣行도 良好한便이다 今日 市況은 한斤에 對하야 三十四、五錢程度이다

▲미역 不振

미역은 盛夏期에 드러가 需要가 不振狀態이고 舊藿은 거의 市場에서 자최를 감추려하며 三陟藿을 비롯하야 新藿의 出廻가 漸增하는 傾向이다 今日 市勢는 한조(二十닙)에 對하야 一圓三十錢 乃至 三圓三十錢가량이다

▲메르치 閑散

메르치는 依然 上品의 出廻가 적어서 閑散狀態인데 今後 上品의 出廻가 漸增하리라고한다 現在賣行은 普通程度로 되고잇스나 品薄과 品惡으로 市況은 依然 不振狀態이다 今日市勢는 一貫에 對하야 一圓乃至 二圓三十錢가량이다



黃昏 (115)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우정(友情)(二)

「동필이 미안하오。병원 에서 나오는길로 인차 차자가재는데……동무들이 와서……」

학수는 다시 공장으로 들어온 첫날 점심시간에 동필에게 감사한 인사를 하엿다。

「뭐 미안할게 잇나……다 그런거지」

「어머니가 어떠케 만히말슴하시는지……한데……」

하고 학수는 퇴원하는날 준식이들이 병원에 차저와서 집까지 가리갓기때문에 동필이한테 가보지못하엿다는 말을 하랴다가 그만두엇다。

「자네집에 가보니까 내가 되려 더 한심해지데그려。허니、뭐 별수잇나……생각갓해서는 단복 한짐 져다주고 십데만 뻔이 아다시피 할면 먼지박게 안남은놈들이니 어디 헐수잇나」

「아니 그거—만코 적은거야 당조에 문제될것도 업는거고……」

「그러치만 생각이야 좀 크게 먹지못할게 잇나……욕심가태서는 사춘 개집 지어주듯이、자네어머니가 그만 혀이 멀쩌 몰려날만치 가저가보고 십고 또 내킨김에 다른 직공들도 먹고 십흔대로、입고 십흔대루 맘껏 해주고 십데만……그야말로 안고수비가 되어서……하하하」

「마음으로라두 그만큼 생각해주니 뭐라 말할수 업소」

하는 학수는 진심으로 감사한생각을 가젓스나 그것을 표시할 적당한 말이 업섯다。

「말으로나 말로 하는거야 누가못하겟나……허지만 맘은 태산가티 먹어도 되는건 벼룩이 애만치밧게 안되니 안돼……」

하는 동필의 말속에는、말로만 재잘대는 준식이때에 대한 비웃음이 잇섯고 또자기의 한일에 대한감상적(感傷的)인 만족이잇섯다 그러나 학수는 고마운·생각뿐으로 그까지 기찰이 밋치지못하엿다 해서

「그럴리가 잇소。먹고 살면됏지……먹고 사는 일이란 여간 큰일이오」

하고 그의 론리에 항울 못내 치하하는 동정을 보엿다。

「그리고 자네일 때문에도 여러번 주임과 말햇네。낭종엔은 낭종일이고 우선 몸부터 성하고야 동필이기에 비로비롤 아끼지말고 잘못어달라고 했지……아니 뭐 내말이라고 떠 잘들어준다고는 할수 업지만 원악 오래잇섯고 또 낫살이나동직허니까 그대지 홋갑게는듯지안는 모양이데」

「그건 글세 나도 잘아는거지만……엇잿든 겨레서 그러케말을 잘해주어서 병신은 면햇쇠다」

「병신만 피어 보게、다시 들어올수 잇나? 한데 순서를모르고 다짜고짜로 이것저것 되려대기만하면 될하나。될것도되려 안되는수가잇거든……일이란 다 선후가 잇는거니까」

하는 동필의 말을 들으며 학수는 그제사 그말속에 준식이들을 나물하는의미가 잇는것을 알엇다。그러나 엇잿든 말만은 고맙음것이 업는듯해서

「암 그러쿠 말구요」

하고 동의를 표하엿다

「해서 자네가 거진다 나어갈림시에야 주임과 다시 말햇지……」

「해고한다고 그러드라지요?」

「면면사람들은 그러케 말하데만 난 그런말까지는 못들엇네 하지만 그야 엇잿든 그저 보구잇슬수 잇나。해서 주임과다시 드러오도록 부탁햇지」

「뭐랍디까?」

「글세 말치장인지는 몰라도 동필이가 말하는거니까 잘생각해보마구 그리데그려」

「하도、그러케 됏군요?」

학수는 사실 준식이네가 로력해서 별일업시 복직된것으로만 알엇슬뿐이요、동필이가 그가티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것은 지금것 알지못하고 잇섯다

「물론 복직되것은 단순히 내힘이라고 할수는 업지만 그러트라도 겻헤서 말하기와 안하기가 다르니까……」

「아무렴요。그리구 또 당신말은 주임이 훌훌히 듯지못하는터이니까……」

「뭐 그럴것까지는 업지만 그다지 개벽게는 보지안는모양이어……」

하다가 동필은 군자에희사가 이른바 져실한 직공의 한몽치를 만들라고 주임을 통하야 자기에게 벗처 호의를 보내고 잇는데 대하야 듯기조케자랑하고 십은 삼시의충동을바닷스나 그대루 참아버리고

「그리구 또 그런말은 잘못갈다가는 본인에게 되려 해를 미치게하는수가 잇단말야!」하니까……」

그럴때에 준식이、카복、질림이가 헐떡거리며 조방실(組紡室)로 들어왓다。학수가 그편을 바라보는사이에 동필은 별말업시 어슬렁 어슬렁 나가버린다